

# 20

## 대학내일



No.844 2018.3.26~2018.4.1

ISSN 2465-7883

### SPECIAL

어떻게 포장해도  
혐오와 차별입니다

잠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혐오의 자유는 없습니다



+

독자 코너 '10만원이 생킨다면?'  
빈티지 필름으로 동인천 산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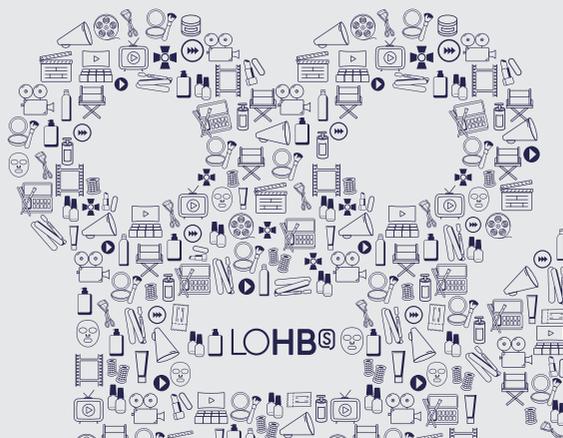
을의 하루 '엔터테인먼트사 홍보팀' 편  
폼나게 일할 줄 알았건만  
현실은 퇴사꿈나무

캠퍼스 TMI '성균관대' 편  
읽다 보면 시간 순삭되는  
캠퍼스 알쓸신잡

20대 최애 아이템 '떡볶이'  
나를 키운 건 팔팔이 떡볶이다

롭스에서 열거할 수 없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 브랜드 영상 공모전



- 주 제**      롽스 브랜드 영상 부문 (10~30초 분량)  
> Everyday Real Beauty Life 매일 만나도 즐거운 롽스
- 롭스 UCC 영상 부문 (자유 분량)**  
> 롽스에 관련된 자유 주제
- 작품규격**    1440X1080 또는 1280X720 pixel (mp4, avi 포맷)
- 시상내역**    대상 : 1천만원 (1명)  
                  금상 : 300만원 (2명) / 동상 : 50만원 (4명) / 입선 : 롽스 상품권 10만원권 (10명)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응모기간**    2018년 3월 12일 ~ 4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롽스 APP 및 롽스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아무 맥주 벗고 피츠 질러

이번 엠티에는,

**피~츠** 주세요

대한민국 맥주를 새롭게!  
수퍼클리어 피츠



물 타지 않아 끝까지 깔끔하다

**피츠** 수퍼클리어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EDITOR**  
권혜은 hyen@univ.me

**PHOTOGRAPHER**  
박시열

**STYLIST**  
김미선, 김은주

**HAIR**  
상근 엔플로에

**MAKEUP**  
김닥스

## KIM DA EUN

김다은

뷰티 유튜버 김닥스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13



02

뷰티 유튜버 김탁스의 시작이 궁금해요.

영화감독을 꿈꾸면서, 연습 삼아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다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연히 <갯잇뷰티 셀프>를 보고 '대학 가면 저런 영상도 만들어보아야지'를 실천했던 게, 처음 만든 뷰티 영상이었죠. 덕분에 뷰티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도 하고, 최종 1인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죠.

01

'킴탁스'란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친구들이 제 이름의 머리글자를 따서, 애칭으로 '킴다'라고 부르던 것이 시작이에요. 여기에 'S'를 붙여서, '킴다'라는 뜻을 만들었죠. 뒤에 무엇을 붙여도 말이 되는 이름이더라고요. '킴탁스 뷰티', '킴탁스 영화'. 처음 제 꿈이 한국을 세계에 심는 영상 제작자·영화감독이었다면, 이제는 '킴탁스'가 '꿈' 그리고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란 뜻의 아이콘이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03

기획부터 촬영·편집·애니메이션까지 직접 하는 1인 크리에이터예요.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나요?

편집 기술은 단순해도 깊은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훨씬 좋아해요. 제작할 때도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곤 하는데, 특히 뷰티 콘텐츠는 구독자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편이에요. 그 아이디어에 기발함을 한 스펀 더하고, 잘 다듬는 건 제 몫이죠. 그래서 유튜브는 구독자와 함께하는 일종의 협업인 것 같아요.



04

뷰티 콘텐츠로 이름을 알렸지만, 김다스를 뷰티 유튜버로만 정의할 순 없어요.

작년 웹무비 <Fairytale in Life -inspired by DISNEY>가 정식 영화로 인정받으면서 영화감독으로 데뷔했어요. "당신의 삶 속에 잃어버린 동화를 찾아줄게요"라는 문구 하나로 시작한 모험이었죠. 이 작품처럼 기존의 콘텐츠를 새로운 플랫폼과 접목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해보고 싶어요. 요즘은 다큐멘터리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접목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05

복잡하고 나서 몇 배로 바빠졌을 것 같아요. 평소 일상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생각보다 바쁘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데, 지난 학기를 생각하면 정말 겨우 숨 쉴 틈만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은 기본이고, 브랜드 행사나 방송, 광고, 화보 촬영 일정이 겹칠 때도 있거든요. 저녁엔 유튜브 영상도 편집해야 하니, 과제와 팀플이 있는 날엔 잠을 잘 못 자요. 말은 임무는 꼭 다 끝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숨~ 사라져버리더라고요.





06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20대들에게  
들려주고픈 말이 있을까요?

"넌 천재야. 1퍼센트의 영감을 가지고  
99퍼센트의 노력을 하거든." 어릴 적 엄마의  
말씀인데, 함께 꿈을 찾아가는 입장에서  
의지가 돼요. 사회가 너무 어려우니 노력이  
의미 없고 보잘 것 없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노력에는 분명 힘이  
있다고 믿어요. 하고픈 일이 생기면 딱  
2년만 투자해보세요. 100세 인생이라는데,  
2퍼센트 정도는 오롯이 나를 위해  
노력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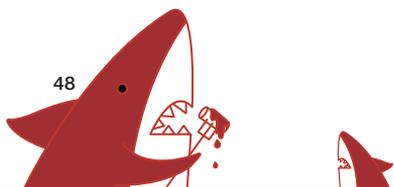
10  
**COVER MODEL STORY**  
 이주의 모델 다른씨의  
 휴대폰 속 일상 사진들

12  
**READER'S LETTER**

14  
**주간줍줍**  
 에디터의 취향으로 이주에 주운 것들



16  
**20'S VOICE**  
 빠른 98과 해리 포터



## CONTENTS

No.844 2018.3.26~2018.4.1

# SPECIAL

18  
**SMALL MIND**  
 대한민국에서 비주류 휴대폰을  
 쓰면 생기는 일

20  
**10만원이 생긴다면**  
 빈티지 필름으로 동인천 산책하기

24  
**CULTURE GUIDE**  
 MOVIE <세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36  
**CAMPUS TMI**  
 성균관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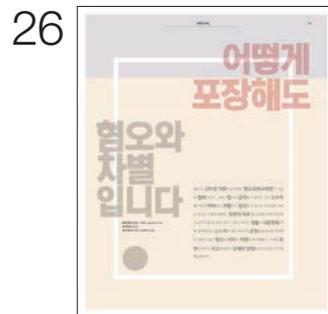
38  
**WORK**  
 알바계의 해병대, 뷔페 알바의 고충

40  
**BAMBOO FOREST**  
 #당발대숲 #핑크택스 #평범한 삶을 원해요

42  
**을의 하루**  
 엔터테인먼트사 홍보팀 편

44  
**THINK**  
 우리에게는 약간 불편한 관계가  
 필요하다

46  
**PUZZLE**  
 기명균의 날말퍼즐



### 어떻게 포장해도 혐오와 차별입니다

01. 무엇이 무엇이 혐오일까 QUIZ
02. 혐오 단어 사전
03. 대중문화 & 미디어 속 혐오와 차별
04. 혐오와 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는가?

48  
**20'SLAB**  
 20대 최애 아이템 16 떡볶이

50  
**WHAT'S NEW**  
 이주의 주목할 만한 소식들

51  
**OUTCAMPUS**  
 봄 소풍 가고 싶은 너를 위한  
 공모전 BEST 4

# CONTENTS TEAM

팀장 홍승우 부팀장 정문정

## MAGAZINE

파트장 김신지 summer@univ.me  
에디터 김혜원 hyewon@univ.me  
권혜은 hyen@univ.me  
서재경 suhjk@univ.me  
학생 에디터 김은지 김혜원 문소정 정다빈  
교정교열 차은선  
디자인 팀장 김해정 kiko@univ.me  
디자인 남미가 miga@univ.me

## DIGITAL MEDIA

파트장 정문정 moon@univ.me  
에디터 김슬 dew@univ.me  
김준용 dragon@univ.me  
박현지 lauraruler@univ.me  
배다솜 sombang@univ.me  
학생 에디터 권용범 구하민 박소영 이진영  
정다운 허정민  
디자인 디렉터 윤희선 yoon@univ.me  
디자인 김지현 uujuinn@univ.me  
이승은 lidy@univ.me  
김은미 mongmigu@univ.me  
조범식 boomsik@univ.me

## MEDIA COMMUNICATION

파트장 홍승우 sseung@univ.me  
책임에디터 김효은 hiho@univ.me  
조종재 woongjae@univ.me  
에디터 백수빈 bin@univ.me  
강민상 ninsan@univ.me  
김상구 nine@univ.me

## BRAND JOURNALISM

파트장 김초롱 rong@univ.me  
책임에디터 주태환 joo@univ.me  
박정욱 wook@univ.me  
에디터 조아라 ahrajo@univ.me  
기명균 kikiki@univ.me  
김수현 soo@univ.me  
유희수 hsyu@univ.me  
노치연 kingfamonkey@univ.me

# STAFF

발행·편집 김영훈 batcong@univ.me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부대표 이태영 이사 김창배 고문 박재항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본부

본부장 김부진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조인천 책임매니저 신예지 이혜민  
매니저 손유리 조하니 김지영 사원 권소영 안예지 조지은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김우준 파트장 김영현 이재우  
책임매니저 이지연 유효정 홍보미 육혜진 권오태 책임에디터 김민정  
매니저 백소연 한은지 이인재 사원 김준호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안길상 파트장 조소라  
책임매니저 김동하 양현정 홍보람 매니저 한희진 이혜인 신호영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4팀

팀장 김지혜 파트장 김영수 문왕기  
책임매니저 신현정 허이슬 김예림 박미소 정영수  
매니저 송태광 에디터 정혁준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본부

본부장 박배길 수석 황정은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5팀

수석 김효선 임영화 책임매니저 박종남 이은지  
매니저 김규태 김다는 이상복 김유진 탕예 정유진 한문규 황주랑  
사원 장지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6팀

팀장 이수이 매니저 배용근 강지인 황주랑 사원 정규홍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7팀

팀장 탁귀영 수석 박지호  
매니저 불장중 강해빈 임은비 최진성 박상덕  
사원 양제희 최정민

## 채용마케팅본부

본부장 김종원 수석에디터 이정섭 책임매니저 최규성

### 채용마케팅1팀

팀장 유제문 수석 홍성우  
매니저 김형민 서창호 정희성 이성훈 박연우  
사원 이종혁 이윤성 이정영

### 채용마케팅2팀

팀장 유진혁 수석 박준하 매니저 이준호 정기현 안창민 허정남  
사원 가민희 윤길주 김용빈 김도희

### 채용마케팅3팀

파트장 신재영 매니저 이지현 최승현 사원 조은솔

##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본부

###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김범준 책임매니저 남승혁 김현주  
매니저 김찬우 김동규 고민지 이아를 사원 송재은

###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차정기 책임매니저 강희은 권예민 매니저 김민주 서해지

### 디지털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방수진 수석 이진희 책임매니저 이교영 홍새봄  
매니저 김애리 박소영 신예지 이나운

### 디지털콘텐츠팀

팀장 김현승 책임매니저 양준호 이연재  
매니저 정진복 서준원 이경민 최현정 한동주  
사원 김소영 설다운 박지연

### 디지털디자인팀

팀장 이혜정 책임매니저 박지성  
매니저 조현상 임다정 오은정 전계은 김희재

## 유스마케팅팀

팀장 이성진 책임매니저 양상범 박정은 명범준  
매니저 박상현 최은원 권민희 정세미  
사원 최창희 김나라 김나영 신은지

## 공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박강두 수석 진우경 강국현 책임매니저 이재혁  
매니저 송정훈 정혜민 이재은 사원 김지수 김하영 윤철한

## 20대연구소

소장 김영기 수석연구원 문송이 박진수 효영성  
책임연구원 송혜운 김금희 연구원 이재훈 정은미 지승현 장지성  
에디터 남민희 사원 김다희

## 크리에이티브센터

센터장 조민형 파트장 정은우 전단비 수석 이윤경  
매니저 김소연 신재인 사원 최웅진 홍서연

## 이비즈(E-BIZ)팀

팀장 권판진 수석 임남훈 김부록 하윤희 심재은 김진의  
책임매니저 고은영 강주빈 김상호 이은주 매니저 김가린 박혜진 조이슬

##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운선 매니저 이승훈

## 경영지원팀

수석 김소연 윤수정 책임매니저 김주은

## 인재경영팀

팀장 민정규 책임매니저 김예지 김일수 매니저 이상엽

## 인턴

권아를 권은빈 김나린 김민경 김민기 김소희 박진지 손경민  
신하영 유승빈 윤여진 이다빈 이성호 이지선 정수지 정장희  
최은유 최현정 홍선아 황기연 황현아 황현정



### 한국의 워소스키 자매

인생 최고의 친구들이에요. 가수과 연출가를 꿈꾸는 동생이 이번에 같은 학교 영화과로 입학했어요. '한국의 워소스키 자매'가 되자고 노래를 부르더니 진짜 할 건 가봐요. 아직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막내도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해요. 앞으로 셋이서 헤 나갈 일들이 항상 기대돼요!



### 일상의 작은 행복

바쁘더라도 친한 친구들과는 종종 만나 야식 타임을 가져요. 사진은 학교 근처에 사는 친구 집에서 맥주랑 야식으로 스트레스를 푼 날이에요. 일상에서 소소하게 좋아하는 걸 정해두면 행복해지기 쉽잖아요. 저한테는 녹차라떼가 그래요. 기분이 꿀꿀할 때 한 잔 마시면 씁쓸하고 달콤한 맛과 함께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에요!

### 좋아하지만... 무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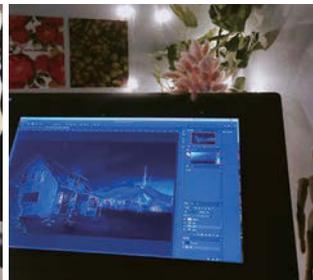
동물을 진짜 좋아하면서, 웃기게도 무서워합니다. 매운 거 못 먹지만 떡볶이 좋아하는 마음과 비슷해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 꼭 그 지역 동물원에 들려요. 친구들은 동물원에 꼬박꼬박 가는 게 특이하다고 하는데,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을 만나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환경을 보존해서 동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ㅎㅎ



다른씨의 휴대폰 속 일상 사진들



## Kimadax Daily Life



### 촬영과 편집은 언제나 짜릿해

제 영화 마지막 편 촬영 현장과 학과 소개 영상 제작 현장이에요. 밤샘 애니메이션 작업하던 사진도 있어요. 전 촬영할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촬영장에서선 날아다니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물론 체력적으로 힘든 때도 많지만 그림이든, 영상상이든 아무것도 없는 네모난 화면에 제가 원하는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게 짜릿해요.



## 친구들과 밤새 놀 때 필요한 신박한 아이템 4

새 학기는 만남의 연속이다. 헤어지기 아쉬워 이 밤의 끝을 잡아 보면 여러 난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 그럴 때를 위해 준비했다. 다소 엉뚱할 수 있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도움되는 네 가지 신박한 아이템.

EDITOR 이민석 min@univ.me ILLUSTRATOR 몽미꾸

### Item 01

#### 벤딩 치마

##### 크고 아름다운 위를 위한 배려

편하게 먹겠다고, 많이 먹어보겠다고 개총에 츠리닝을 입고 갈 수는 없을 터, 패서너블함을 잃지 않으면서 큰 위의 한계를 시험해볼 수 있는 신축성 좋은 벤딩 치마를 추천한다. 온라인 검색창에서 '벤딩 치마'로 찾으면 저렴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온다. 걸로 봤을 때는 고무줄이 전혀 티 나지 않아 격식을 갖추는 자리에도 딱이다. 똑같은 회비 내고 남들보다 많이 먹고 싶다면 패션도 전략적으로!



### Item 02

#### 뷰티스푼 노세범 파우더 왁스 머리에서 기름이 산유국급으로 나온다면

볼륨감 풀려서 힘없이 떨어지는 앞머리나, 딱지는 머리가 신경 쓰여 계속해서 머리를 만지다 보면 같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짜증난다. 이 노세범 파우더 왁스를 아침에 속속 발라주면 밖에 하루 종일 있어도 머리가 딱지지 않고 볼륨감 유지가 가능하다. 특히 시스루 뱅헤어나 짧은 머리 스타일이라면 조금만 지저분해져도 인상이 확 달라 보인다. 중요한 약속 있는 날엔 드라이로 머리를 말린 후 요 녀석을 쓰으셔서 발라주시길.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감 업된 상태로 다닐 수 있다.



### Item 03

#### 아벤스 오 떼르말 스프레이 피부 가뭇이 싫은 당신에게

1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당분과 염분으로부터 찌든 피부를 지켜주는 훌륭한 미스트다. 특히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 먼저 뿌리고, 건조함에 신음하는 친구들에게 좌악~ 뿌려주면 마음 훈훈한 친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성이든 건성이든 늦은 시간이 되면 당연히 피부 수분은 부족해진다.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 미스트를 쓰는 것에 거부감이 많은데,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야식 먹는 생활 패턴상 더욱 보습에 신경 써야 한다. 어리다고 방치했다간 군대 가기 전에 아재 소리 들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관리하즈아!



### Item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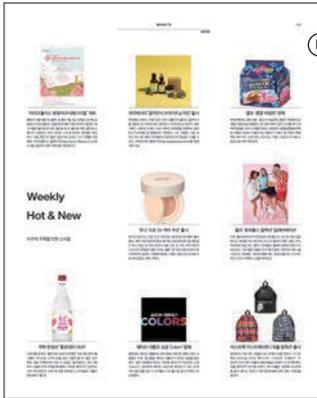
#### 쿠퍼비전® 클래리티™ 원데이 렌즈 들어는 봤니? 산소 렌즈!

산소 투과율이 높은 '클래리티 원데이 렌즈'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료로 만들어져 높은 산소 투과율을 제공한다. 또한 높은 함유율로 하루 종일 촉촉한 착용감이 유지된다. 자외선 차단 기능을 통해 자외선으로부터 각막을 보호해주기까지!

본 제품은 매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렌즈로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 사항과 사용 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 필: 2018-GJ1-07-0005





###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이수정

사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이나 제품이 아니라면 잘 모르고

시즌이 지난 후에나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Weekly

Hot & New'에서 매주 한정판이나 브랜드 컬래버 제품에

관한 소식을 빠르게 알려주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주 보는 대학내일 잡지에 알지 못했던 제품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코너가 생겨서 정말 좋아요!



843호 대학내일

###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함예일

덕분에 '청년허브'라는 기관을 처음 알았어요! 항상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친구들과 원하는 것을 해보고 싶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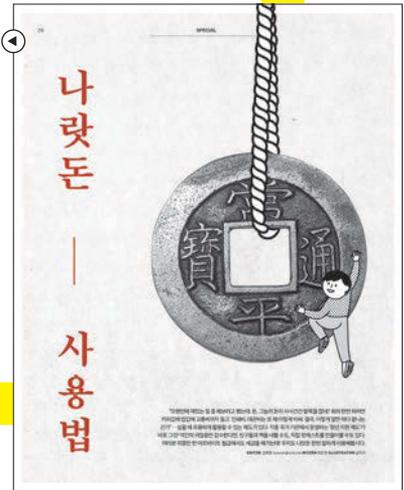
지금 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청년참'

지원해보려고 합니다. ㅎㅎ 대학생 혹은 청년들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원하는 일을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기사를 지금이라도 볼 수 있어 다행이에요!



### 마음에 오래 남을 비극

오근령

저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 도서관 앞에 비치되어 있는 대학내일을

집어 들어 가장 먼저 '20's Voice' 칼럼을 찾아 읽어요. 언젠가는

내 이야기가 실렸으면 하는 코너이자, 다양한 20대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칼럼을 읽고 너무 슬퍼서 마음이

좋지 않았고, 또 나 자신의 나태함에 대해 반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고자 양다솔님의 글솜씨에도 놀랐습니다. 저 또한 내가

가진 것들을 비참하다고 여기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들이

나쁘지만 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글은 제 마음에 오래 남을 거예요!



WEEKLY GIFT



### 대학내일에서 독자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과 인상 깊었던 기사,

앞으로 만나고 싶은 기사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독자 의견으로 채택되어 잡지에 실린 세 분께

BALLOP 리플렉스 스니커즈 퓨어(색상 랜덤)를 드립니다.

✉ 메일 readers@univ.me \* 본문에 이름/주소연락처 기재 필수

📷 instagram #대학내일로 참여



## 독자 의견 보내고 선물 받기! Reader's Letter

이번 호를 읽고 좋았던 점과 인상 깊었던 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지면에 의견이 실린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주 선물  
BALLOP 리플렉스 스니커즈 퓨어(색상 랜덤)

 메일 readers@univ.me

※ 본문에 이름/학교/연락처 기재 필수

# 20 주는데 왜 받질 못하니

## 대학내일

## 퍼즐 풀고 신간 받기! 기명균의 낱말 퍼즐

낱말 퍼즐을 풀고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인증 샷을 올려주시면, 매주 추첨을 통해 신간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주 선물  
김중혁 『무엇이든 쓰게 된다』

 instagram으로 참여  
#대학내일 #무엇이든쓰게된다



### 현실의 퀘스트에 지칠 때면

버튼을 콕콕 누르면 고양이들이 집으로 모여든다. 밥그릇을 터치해 사료를 채워주는 것 외엔 특별히 할 게 없다. 그저 놀러 온 고양이들이 스크래쳐에 발톱을 긁거나, 방석에 누워 빈둥대는 모습을 구경할 뿐이다. 요즘 빠져든 게임 <고양이가 귀여운 나는 유령> 속 세상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게임답지 않게 깨야 할 퀘스트도, 수행해야 할 미션도 없다. 스테이지가 나눠져있긴 하지만, 고양이 밥만 잘 챙겨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지루하지 않느냐고? 전혀. 현실에도 깨야 할 퀘스트는 충분하기에. 그럼 저는 고양이 밥 주러 이만! **샤재경**



GAME 고양이가 귀여운 나는 유령



MUSIC VIDEO  
<Sigrid - Strangers>

### 안녕, 낯선 사람

대놓고 영접 좀 하겠다. 셋노란 반팔에 하이웨이스트 진과 흰색 스니커즈를 이렇게나 잘 소화할 일인가 싶어 넋 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단 한 벌의 의상, 단조로운 카메라 워킹과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배경의 스튜디오. 4분 4초 동안 그녀가 하는 건 오직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제 나름의 박자를 타는 일. 연기를 한답시고 얼굴을 구겨도 마냥 사랑스럽고, 후렴구에서 터지는 허스키한 보컬은 너무도 청량해서 속이 다 시원해질 정도다. 누구냐고? 무려 BBC가 선정한 2018년 주목해야 할 신예 아티스트 1위에 오른, 96년생 노르웨이 출신 아티스트 '시그리드'다. 이 사람, 아무래도 크게 될 것 같으니 미리미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장하시라. **최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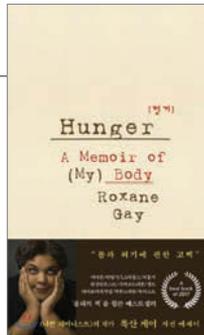
## Weekly Pick Up

###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해 보일 때 뭘 하면 좋을까

어렵지 않게 웹툰 <흔자를 기르는 법>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공황장애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시다'는 친한 언니 '해수'의 도움을 받아 서울 근교에서 오랜 친구였던 햄스터 '요발이'의 장례식을 치른다.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시다의 공황장애 증상이 악화되고, 들은 어쩔 수 없이 휴게소에 들르게 된다. 이때 미안해하는 시다에게 해수가 해준 말이 참 멋지다. "됐어. 그냥 우리는 알감자도 먹고 구슬 아이스크림도 먹자. 그러다가 이젠 충분하다고 느껴지면 그때 서울로 돌아가자." 지난주 아빠가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 원치 않는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평소와 다르게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다. 해수처럼 멋지게 잠깐 쉬어 가자고 위로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로 부적격자답게 "그러게 술 담배 좀 즐기시지"라고 말했다. **김혜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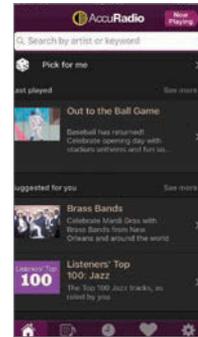
WEBTOON <흔자를 기르는 법>



BOOK 록산 게이, '헝거'

###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다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기보다는, 나쁜 페미니스트를 택하겠습니다." 『나쁜 페미니스트』의 작가 록산 게이가 신작으로 돌아왔다. 답답한 속을 풀어주는 글일 거라고 막연히 상상했으나, 받아 든 책 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헝거』는 성폭력 사건 이후, 세상의 잔인함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 노력한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다. 쉽게 읽히는 책이지만, 책장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 작가는 다시는 '비포'로 돌아갈 수 없어, 자신의 몸을 아무도 상처 입힐 수 없는 요새로 만들었다고 고백한다. 책장을 덮고 한동안 멍했다. 작가의 말처럼 모든 일에는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음식에 의지하는 사람을 괘시한 적은 없었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외롭고, 겁먹고 상처 입었는지 한 번이라도 관심가진 적이 있었나? **권혜은**



RADIO AccuRadio

### 집중력 짧은 이를 위한 노동요

글을 쓰거나 일을 할 때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듣지 못한다. 그렇잖아도 집중력이 짧는데 자꾸 가사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이는 부분을 훑어거리거나, 그래, 헤어지면 그렇지, 속으로 맞장구를 치게 되기 때문이다. 처음엔 가요에 한정된 현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랫말이 있는 모든 곡에 반응하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라디오를 듣고 있다. 'Better radio for your workday'라는 슬로건부터 믿음직스럽다. 그중 노동요에 딱인 카테고리에는 'Jazz for concentration'. 어디서 들어도 카페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은 덤. 로그인도 필요 없고, 무료이고, 다양한 채널을 취사선택할 수 있어 숙면용, 청소용, 주말 기분 내기용으로도 좋다. 스마트폰 앱 혹은 웹(www.accuradio.com)으로 이용 가능. **김진지**

#블록버스터급

#스펙타클

#1억 2천만원

#취업까지



시나리오에서 끝나는 공모전은 CUT!  
**영상콘텐츠 부문**

작품부문

단편영화 / 애니메이션 / 웹드라마

지원자격

아마추어 대학생 및 일반인

제작기간

총 4개월

수상혜택

총상금 9,100만원 (제작지원금 포함)  
우수작품 B tv, oksusu VOD상영

# 역대급 크리에이티브 챌린지

총상금 1억 2,000만원에 도전하라!  
[www.be-creator.co.kr](http://www.be-creator.co.kr)

작품접수

2018.4.30(월) 18시까지

일상 속 아이디어로 크리에이티브를!  
**광고콘텐츠 부문**

작품부문

영상광고 / 인쇄광고

지원자격

대학생 (재/휴학생)

작품접수

4월 30일(월)까지

수상혜택

총상금 2,900만원  
대상: 최우수상팀 SK브로드밴드 공채 서류 면제



WRITER 한세희 kimsehee98@naver.com

나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 한국의 평범한 머글



## 빠른 98과 해리 포터

나는 해리 포터가 볼드모트를 물리쳤을 때보다 나이가 많다

조금씩 따뜻해지는 3월 초, 벌써 끝나버린 방학은 왜 이리도 짧은가 고찰하던 중 누군가 “우리도 해리 포터처럼 새 학기의 시작이 9월이면 어떨까”라는 말을 했다. 그 말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해리 포터』 시리즈가 새록새록 떠올랐다. 간만에 향수에 젖어 집에 있던 『해리 포터』 원서 7권을 꺼내 들어 무작위로 책장을 넘기다 순간 덜컥하고 손이 멈췄다.

“Well, happy birthday anyway.”

“Wow? that's right, I forgot! I'm seventeen!”

해리 포터가 열일곱 살? 7권이 마지막 권인데 열일곱이라고? 영국은 만 나이 일 테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열여덟, 고등학교 2학년. 그러면 해리 포터는 열아홉 살에 볼드모트를 무찌른 건가...? 지금의 나보다도 어린데? 오 맴소사. 난 뭐 하고 있었지? 격한 충격과 함께 갑자기 인생에 회의감이 밀려왔다.

대학에 들어온 이후 줄곧 ‘나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 왔다(참고로 2018년 현재, 나는 빠른 98, 21살로 대학교 3학년이다). 발단은 빠른 생년에게 어린 취급을 제대로 해주는 대학 문화였다. 빠른 생년에 큰 의의를 두지 않는 중 고등학교와는 달리, 동기보다 1살 어린 나를 모두 귀여워했다. 집에서는 큰 딸, 학교에선 애늬은이 소리를 듣던 나는, 곧 새로운 시선에 익숙해졌다. 어리다고 챙겨주는 이, 내 나이를 부러워하는 이들의 반응이 좋았다. 그렇게 내가 ‘빠른’이며 남들보다 ‘비교적’ 어리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그건 스무 살이 되어 물리적으로 성인의 커트라인을 넘긴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나자신을 어리다고 생각한 지 오래였고, 역시 아직은 좀 더 어린 나이를 즐겨도 될 것 같았다. 그러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내 나이를, 좀 더 정확히는 내가 늙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버린 것이다. 바로 열여덟 살의 해리 포터로 인해.

어린 시절에 읽었던 『해리 포터』 시리즈의 해리와 론, 헤르미온드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이었다. 나도 크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동경했던 이들이었는데. 어른이 되어 다시 읽은 책에서 그들은 어느새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되어 있었다. 스물한 살인 나는 해리 포터가 최후의 전투에서 볼드모트를 물리쳤을 때보다 나이가 많다. 퀴렐 교수에 맞서 싸우며 마법사의 돌을 지켜냈던 열세 살보다도 당연히 많고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뭘 했지? ‘나는 아직 어리니까’, ‘어려서 못하는 것도 많고 경험도 적은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현실 도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단순히 해리와 그의 친구들이 열두 살부터 열아홉 살까지 세운 업적들과 비교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고민하고 선택하며 용감하게 맞서 싸웠던 그 순간들을 알기에 자괴감이 드는 것이다. 나였다면?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최고의 걱정이 성적과 학점뿐이었던 나는? 물론 저마다 살아온 삶이 다르기에, 같은 상황 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하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보다 오래 살았다는 생각에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나는 나를 어리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해리 포터는...내가 항상 나이 들어야, 나이가 들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해리 포터는 지금의 나보다 어리다. 나이가 무엇일까. 경험은 또 무엇일까. 나는 나의 나이에 당당한가? 나는 나의 나이를 책임질 수 있는가? 빠른 98인 나는, 21살 나는 열여덟의 해리 포터보다 어른일 수 있는가?



## 10만원이 생긴다면?

대학내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이 생긴다면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어떤 이유로 어디에 쓰고 싶은지 '10만원 사용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계획이 신박할수록, 이유가 설득력 있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첨된 분께는 10만원을 드리고, 그 생생한 사용기를 지면에 실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메일 [magazine@univ.me](mailto:magazine@univ.me)

※ 제목에 [10만원] 포함

Ex.[10만원] 사용계획서 보냅니다!

※ 본문에 이름/학교/연락처 기재 필수

# 20 대학내일 ₩100,000원

## 글 솜씨 뽐내고 원고료 받기! 20's Voice

20대라면 누구나 대학내일에 글을 기고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겪고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A4 1장(원고지 10매 이내) 분량으로 보내주세요. 지면에 글이 실린 분들께 원고료 10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메일 [magazine@univ.me](mailto:magazine@univ.me)

※ 본문에 이름/연락처 기재 필수





# 소심이의 소심한 생활



# 대한민국에서 비주류 휴대폰을 쓰면 생기는 일

휴대폰 사러 가서 내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여기서 제일 저렴한 모델이 뭔가요?”다. 그러면 대부분이 ‘거참 보기 드문 젊은이일세’ 하는 표정으로 되묻는다. “한번 사면 적어도 2년 이상은 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디자인은 주로 어르신들이 쓰세요” 이때가 바로 속스럽지만 tmi를 꺼내야 하는 타이밍이다. “근데 제가 휴대폰을 좀 험하게 써서요. 자주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금도 기기값만 3대를 내고 있거든요.” 내 고백을 듣고, 백만원이 넘는 최신형 모델을 권하던 점원은 머쓱한 표정을 지을 테다. 익숙한 실랑이 후, 그가 쇼케이스 구석에서 꺼내준 투박한 기계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것을 골라 산다.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괜찮다. 어차피 금방 잃어버릴 건데 뭐. 내가 처음부터 이런 기준으로 휴대폰을 골랐던 건 아니다. 매일 들고 다니는 물건인 만큼 성능도 디자인도 최고를 바랐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부담되더라도 최신형 모델을 샀다. 내가 답도 없는 딜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채... 주인을 잘못 만난 귀한 물건은 각종 봉변(ex.아스팔트 바닥과 정면충돌해 액정 파괴됨, 물을 뒤집어서 침수됨)을 당한 뒤, 허름한 술집이나 택시에 버려지곤 했다. 그리하여 회생 불능으로 망가진 놈이 3대, 내 손을 떠나 다른 나라워치 추적 결과 주로 중국에 가 있더라)로 팔려간 놈이 4대 정도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 따위 인간에게 비싼 휴대폰은 사치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보급형 휴대폰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에는 특정 브랜드의 고급형 모델을 쓰는 사람이 다수더라.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두면 옆에 아홉은 “이거 무슨 기종이야? 처음 보는 건데?”라고 물어보고, 내 휴대폰으로 다 같이 셀카라도 찍으러 치면, 화질이 너무 후지다며 다른 걸 찾는다. 말이 나온 김에 하소연 하나 더 보태자. 예쁜 케이스는 사과폰과 은하수폰 두 종류로만 나온다.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를 파는 매장에 가면 어쩐지 주눅이 든다.

## 마음을 활가분하게 만드는 주문

“ 다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폰 케이스 있나요?”, “없는데. △폰이 뭐예요. 언제 나온 거예요?”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릿속에선 친구들의 놀림이 메아리처럼 울린다. 그러게 사과폰을 쓰라니까.

온갖 수모(?)에도 불구하고 나는 휴대폰에 한해 지금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매년 분실 이벤트를 연례행사처럼 치러야 할 텐데, 내 수입으로는 그 비싼 기기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조심해야 하겠지만 천성이 어딜 가겠나). 나름 장점도 있다. 웬만한 사람은 탐내지 않는 모델이라 잃어버려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촌스러운 휴대폰 케이스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작은 바람이 있다면, 왜 보급형 모델을 쓰는지 매번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됐으면. 어떤 휴대폰을 사용하는지로 내 취향이나 감각이 평가절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도 될까. 소수가 되는 아주 사소한 경험을 한 뒤, 그동안의 언행을 돌아보고 크게 반성했다. 세상엔, 다수 집단에 속해 있을 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그들에게 소수가 된 이유를 묻는 것, 이제 그만 다수로 넘어오라고 권하는 것, 그걸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 전부 무례다. 악의 없이 밝은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에. 모두가 섬세한 언어를 배워야 한다. ‘그런 거까지 일일이 신경 쓰면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싶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 함께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아니 그 정도는 불편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 빈티지 필름으로 동인천 산책하기

요즘 빈티지에 관심이 많아졌다. 새 책보단 헌책, 새 옷보단 구제 옷, 그리고 새 필름보다는 빈티지 필름. 10만원이 생긴다면, 평소 구입하기 망설여졌던 빈티지 필름을 사서 오래된 동네로 출사를 가고 싶었다. 어디가 좋을까 찾아보다가 옛 골목의 정취가 남아 있는 동인천 사진을 보고 마음을 정했다. 서울 토박이로서 처음 가보는 동네였다. 조용하고 한적한 거리를 걸어 빈티지 숲도 들르고 카페도 갔다. 유통기한이 지나 색이 변형된 빈티지 필름을 끼우고 꿈같은 산책을 했다. 좋은 하루였다.

학생 에디터 정다빈 jungdb98@naver.com





### 개화기로 타임 슬립, 개항누리길

차이나타운 옆의 '개항누리길'은 이름 그대로 인천 개항기의 역사와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다. 일본식 목조 가옥과 은행, 성당 등이 보존되어 있어 걷다 보면 교토 한복판을 걷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특히 중구청 앞으로는 근대 건축물을 복원한 카페뿐 아니라 플라워 샵, 갤러리 등 들를 곳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덕분에 요즘 들어 출사지로 떠오르는 곳이기도.



빈티지 필름 35,700  
필름 현상 비용 30,000  
교통비 5,000



### 다 갖고 싶은 빈티지 샵, 그때 그 사람

동인천역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조그만 빈티지 샵. 특이하게도 전에 있던 문구점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한다. 옆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추억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떼지 않았다고 걸모습은 친숙한데, 안에 들어가면 반짝거리는 물건들이 가득하다. 사장님도 친절하시니 동인천에 간다면 꼭 한번 들러보길. 빈티지 브로처 10,000



**옛집에서 먹는 따뜻한 단팥죽, 팻알**

빈티지 슻을 지나 개항누리길로 쪽 들어가면, 카페 팻알이 있다. 100년 넘은 옛날 목조 건물 형태를 거의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어 저절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달달한 팥과 계피 향이 잘 어우러지는 단팥죽, 부드러운 나가사키 카스테라는 낮선 동네를 좀 더 친숙하게 만들어준다. 2층과 3층 다다미방은 5인 이상 예약해야만 들어갈 수 있으니 앉아보고 싶다면 예약 필수.

단팥죽 7500 카스테라+아메리카노 세트 5,500





### 흑백사진관, 우리

촬영과 인화를 단돈 오천원에 할 수 있다. 액자 형태로도 팔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추천. 이날 동인천 산책을 함께한 친언니와 한 장의 추억을 남겼다.



### 다락방 창문으로 바다를 내다보는, 낙타사막

이름부터 특이한 낙타사막. 개항누리길에서 자유공원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작은 카페가 보인다. 카페 이곳 저곳 검은 고양이와 누런 고양이 그림이 붙어 있는데, 카페 사장님의 가족이라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다락방 보다 큰 공간이 있어 책 읽기에 좋다. 탁 트인 창밖으로 동인천 풍경이 펼쳐져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한 휴일을 보낼 수 있다. 따뜻한 라떼를 시키면 사장님의 라떼 아트 실력까지 엿볼 수 있는 곳. **프렌치 바닐라라떼 4,500**



###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이 생긴다면?

다음 주 주인공은 바로 나!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10만원이 생긴다면 어떤 이유로, 어디에 쓰고 싶은지 magazine@univ.me 로 '10만원 사용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계획이 신박할수록, 이유가 설득력 있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첨된 분께는 10만원을 드리고, 그 생생한 사용기를 지면에 실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랑의 본질에 관한 성인 동화

### MOVIE

####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 The Shape of Water



감독 기예르모 델 토로  
출연 샬리 호킨스, 마이클 새넨, 옥타비아 스펜서, 리처드 젠킨스 외

전에 남자친구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내가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불구하고더라도 네가 날 좋아했을까?” 의미 없는 상상일지 몰라도, 오래 생각했던 질문이었다. 만약 서로를 알게 된 이후에 사고로 장애를 가졌다면 변함없었는지 모른다. 각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음을 알 테니까. 하지만 서로를 알기 전에 이미 장애를 지니고 있었다면? 나부터 자신이 없었다. 그를 보고도 정작 그의 본질은 보지 못한 채 지나쳤는지 모른다.

<셰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은 그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한다. 영화의 주인공 엘라이자(샬리 호킨스)는 언어장애를 지녔지만, 일어난다면 따뜻한 물을 받아 그 안에서 육체적인 희열을 느끼는 주체적인 여성이고, 탭댄스를 따라 추며 일터에 가는 유쾌한 사람이다. 엘라이자는 수다스러운 동료 켈다(옥타비아 스펜서)와 함께 미 항공우주연구센터의 비밀 실험실을 청소하는 일을 한다. 어느 날 그녀는 물속에 사는 미지의 괴생명체 크리처(더그 존스)를 목격한다. 엘라이자와 크리처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뒤, 아무도 몰래 교감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실험실의 보안 책임자 스트릭랜드(마이클 새넨)가 크리처를 학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를 해부하려 하자, 엘라이자는 깊은 우정을 나눈 옆방 친구 자일스(리처드 젠킨스), 동료 젤다, 호프스테틀러 박사(마이클 스톨버그)와 함께 스트릭랜드에 대항하고, 크리처를 구하기로 한다.

영화는 장애인이라서, 동성애자라서, 흑인이라서, 인간이 아니라서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백인 남성의 대치에 주목한다. 말을 하지 못하는 엘라이자, 직장에서 실직당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동성애자 자일스, 인종으로도 성별로도 차별받는 흑인 여성 젤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외모 때문에 학대당하는 크리처. 그들의 반대편에는 폭력적이고 냉혹한 스트릭랜드가 있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영화의 제목이 지닌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사랑 또한 그렇지 않은가?” 사랑의 모양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본질은 결국 같다는 의미일 테다

“우리는 신을 본떠 창조됐잖아. [...] 아마 당신보다는 나를 닮은 쪽이겠지.” 스트릭랜드가 젤다에게 한 이 말은 그가 가진 편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백인 남성, 즉 자신이 곧 신이라고 굳건히 믿으며 소수자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침묵하며 살게끔 억압한다.

감독 기예르모 델 토로는 얼핏 기괴하고 무서워질 수 있는 이 영화에 음악과 색감으로 활기를 불어넣는다. 영화의 시작부터 어둡지만 몽환적인 색감과 환상적인 음악을 활용해 어른들을 위한 동화임을 암시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엘라이자와 인간의 말을 하지 않는 크리처의 교감을 환상적으로 그려낸다. 특히 엘라이자와 크리처의 사랑 이야기를 음악으로 섬세하게 표현해낸 점이 돋보인다. 부드러운 물의 흐름은 신비로운 하프 소리로, 살짝 불안하게 움직이는 물방울은 잘게 떨어지는 관악기 소리로 묘사해 물의 이미지를 청각적으로 그려낸 것. 특히 엘라이자가 미국 출신의 성악가 르네 플레밍의 목소리를 빌려 크리처와 춤추는 ‘You’ll Never Know’ 무대를 상상하는 장면은 흑백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환상적이다. 남들과 조금 다른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힘들고 슬픈 것만은 아니라고, 그들의 마음은 보통의 사랑 이야기와 똑같다고 말하듯이.

비 오는 날 창문에 부딪혀 저마다 따로 흘러내리다가 합쳐져 흐르는 빗방울처럼, 엘라이자와 크리처는 물 밖의 현실에서 시작한 사랑을 물속에서 이루어낸다. 감독은 인터뷰에서 영화의 제목이 지닌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 사랑 또한 그렇지 않은가?” 사랑의 모양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본질은 결국 같다는 의미일 테다.

영화 속에 나온,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시로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당신의 형체를 감지할 순 없지만, 어디에서든 당신을 찾을 수 있네. 당신의 존재는 사랑으로 내 눈을 채우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네, 당신은 어디에든 있으니까.

## 사랑의 본질에 대해

더

생각하고 싶다면

+

### Movie <내 사랑>

무뚝뚝하고 투박한 에버렛의 집에 몸이 불편한 모드가 가정부로 들어와 살며 사랑을 키우는 이야기. 에버렛은 모드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고, 모드는 집에 그림을 그리다가 우연한 기회에 화가가 된다. 모드가 예쁜 그림으로 어두운 집안을 밝혀주듯이 서로의 불안정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 사랑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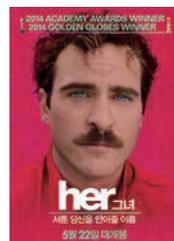
### Book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 드 보통의 데뷔작. 주인공과 그의 연인 클로이가 겪는 연애 속에서 철학적인 의미를 끄집어낸다.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지, 사랑은 곧 소유인지 등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사랑’을 한 발짝 떨어져 특유의 통찰력으로 고찰한다.



### Movie <그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편지를 써주지만 정작 본인은 공허하고 외로운 테오도르가 인공지능 운영체제(OS) 사만다를 만나게 되고 사랑을 느낀다. 하지만 OS와의 사랑을 이해받지 못하고, 사만다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된다.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하게끔 한다.



# 어떻게 포장해도

# 혐오와 차별입니다

**EDITOR** 권혜은, 서재경 suhk@univ.me  
**INTERN** 최은유  
 학생 에디터 김은지 김혜원 문소정



얼마 전, 김부겸 의원이 발의했던 ‘혐오표현규제법’이 사실상 철회되었다. 그러나 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소수자를 마음껏 비하하고, 차별하고, 혐오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표현의 자유’를 프리패스처럼 꺼내 들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과 대중문화 속에 침투해 있는 소수자에 대한 무의식적 표현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얼마나 많은 혐오와 비하와 차별을 발견했는지, 그러한 표현이 우리의 사고에 얼마나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자.

Q1. 다음은 최근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모아놓은 것이다. 혐오나 차별과 관련 있는 제목을 고르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흑형 래퍼 OO, 힙합 레이블과 전속 계약
- ② 연극으로는 처녀작, 무대 통해 더욱 성숙해졌다.
- ③ 그녀의 아찔한 뒤편, "몰라봐서 죄송".
- ④ "발암은 NO" 청정 주말 힐링곡이 온다.
- ⑤ 22살에 미혼모, 미망인 된 사연은?

Q2. 다음은 한 RPG 게임의 광고 영상 중 한 장면이다. 해당 장면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고르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전투 게임인데 왜 바니걸 캐릭터가 등장하는지 모르겠다.
- ② 갑옷이 아니라 노출이 심하고 보호를 못 하는 복장을 입고 있다.
- ③ 인체의 실제 비율과 비교해, 신체 부위의 볼륨이 '밸브'이다.
- ④ 뜬금없이 가슴과 엉덩이로 하트를 쏘서 적을 물리친다.
- ⑤ 게임에서 이겼더니 갑자기 섹시한 포즈를 취한다.



Q3. 다음은 두 명의 대학생이 나누는 대화 중 일부이다. 밑줄 친 낱말 중 혐오나 차별과 관련이 없는 단어는?

김대학: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겨울에 끼던 ㉠병어리장갑을 다시 꺼냈어.  
 이내일: 나도 꺼내야겠다. 근데 손도 살쪄서 들어갈지...요즘 완전 ㉡안여돼 상태야.  
 김대학: 아, 너 말랐으면서 자꾸 그런 말 할래? 완전 ㉢발암 이야.  
 이내일: 됐고, 너 학교 앞 ㉣편의점너 알아?  
 김대학: 완전 ㉤성과더라. 얼굴 보고 깜짝 놀랐잖아.

- ① ㉠안여돼 - ㉢발암
- ② ㉠안여돼 - ㉤성과
- ③ ㉠병어리장갑 - ㉢발암 - ㉣편의점너
- ④ ㉠병어리장갑 - ㉢발암
- ⑤ 없음

Q4. 다음은 현재 방영 중인 예능 프로그램 네 가지를 모은 것이다. 혐오나 차별이 드러난 장면을 모두 고르시오.



- ① MBC <무한도전>
- ② JTBC <아는형님>
- ③ KBS2 <영수증2>
- ④ KBS2 <안녕하세요>
- ⑤ 없음

# 무엇이 무엇이 혐오일까

일단 풀자. 퀴즈 풀자.  
EDITOR 권혜은 hyen@univ.me



# 혐오 단어 사전

모르고 썼는데  
알고는 못 쓰는  
단어들,  
나만  
불편한가요?

INTERN 최은유 metaphor@univ.me

## 외모

**파오후**  
**쿵척쿵척**  
**안여돼**  
[유의어] '안여말'  
**근육돼지**  
**성괴**  
[유의어] '강남미인'

외모 지상주의는 가장 보편적이고 만연한 차별 중 하나다. 뚱뚱하거나 너무 마른 사람, 혹은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되려 '자기관리가 부족하다'고 낙인을 찍으며 사회 구성원 다수가 혐오에 일조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비만인에게 유난히 혹독한 나라다. 나태와 게으름의 척도를 뚱뚱함으로 판단하고, '파오후 쿵척쿵척' 등 스테레오 타입으로 얼룩진 모멸적 호칭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한날 가버운 유머 거리로 치부한다. 이러한 외모 차별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성형 수술을 한 사람에게는 징그럽고 부자연스럽다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급기야 '성형 괴물'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는 풍조는 또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 여성

**김치녀**  
[유의어] '똥장녀'  
**김여사**  
**맘충**  
**여OO, 여류OO**  
**처녀작, 처녀비행**  
**미망인**

국어사전에 등재된 고유어부터 인터넷 신조어까지, 여성 차별적인 단어들은 시대에 맞게 소멸되기는커녕 더욱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변모하고 재생산되어왔다. '김치녀'를 비롯, 특정 집단에 의해 여성 혐오 정서가 깃든 용어들이 일반화되어 쓰이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예를 들어 운전에서 서툰 중년 여성 운전자를 지칭하는 '김 여사'는 일반적인 여성 운전자로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뛰어넘어, 실제 운전자가 남성이었음에도 쓰이는 경우가 수도룩하다. 그 밖에 모든 직위의 디폴트 값을 남성으로 여겼기에 탄생한 '여OO', '여류 OO' 등의 남용도 직업의 성별 구분이 사라진 21세기에 상당히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볼 수 있다.

## 세대

**틀딱**  
**노땅**  
[유의어] '노친네'  
**급식충**  
**중2병**  
**휴먼급식체**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단어들인 일상생활, 인터넷 커뮤니티, 1인 미디어 등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의 기저에 모두 혐오의 정서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적 행동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집단 전체를 'OO충'이라 폄하하는 것을 과연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모든 노인이 편협하고 수구적인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며, 모든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개념 없는 존재도 아니라는 점이다. 단순한 조롱과 비하에 지나지 않는 이 용어들은, 특정 세대를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기에 오늘날 첨예한 세대 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 현대문학사를 빛낸 여류 작가들 한자리에

삼성출판박물관 '여성이 쓰다'展

판빙빙, 연인의 감독 처녀작 위해 '노개런티 출연'...

김여사주차 걱정 끝- 발레파킹 로봇이 나왔다.

혹시 나도 맘충? 육아 이기주의가 아이를 망친다

아프리카TV '별풍선'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 김치녀 · 풍선남에게 풍선 헌납하지마"



## 장애

장애우  
장애자  
장님  
애꾸눈  
소경  
봉사  
귀머거리  
병어리  
말더듬이  
병신  
불구자  
절름발이  
얇은뱅이  
난쟁이  
고자  
장애를 '알고' 있는  
정상인

이게 왜? 하고 의아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위에 언급된 용어들은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낳는 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혹은 마땅한 대체어가 없어 무의식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미 관용어로 굳어져 기사 헤드라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꿀 먹은 병어리', '눈 뜬 장님', '귀머거리 삼 년', '절름발이 정책' 등은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 용례다. 2016년 민주노총은 약자에 대한 비하 우려가 있는 '병신년(丙申年)' 표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고, 최근 평창 패럴림픽에서는 '병어리장갑'을 '손모아장갑'으로 판매해 화제가 됐다. 아무런 악의가 없어도 듣는 이가 상처받을 여지가 있다. 이처럼 그 단어의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 인종

혼혈아  
짱깨  
쪽발이  
베트콩  
개슬람  
똥남아  
양놈  
코쟁이  
니그로  
흑형  
흑누나  
튀기  
외노자

해외 여행 중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사람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지만, 국내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나이지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모델 한현민은 한 인터뷰에서 '흑형'이라는 말만 들으면 심장이 멎는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종종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되지만, 당사자가 듣기엔 충분히 거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혐오의 뉘앙스를 대놓고 풍기는 '짱깨', '쪽발이' 등은 차별인 줄 알면서도 쉽게 쓰이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여전히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타인종에 대한 혐오를 일삼는다면, 언젠가 지구 반대편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 질병

발암  
지랄  
땡강  
정병  
정신분열증  
염병  
염병  
문디

'암 걸릴 것 같다', '너 정말 발암이다', '암 유발 웹툰', 모두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표현들이다. 암을 겪어본 적 없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매우 가볍게 쓰이는 일상 '드립'일지도 모르겠으나, '암'은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질병이다. 그만큼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 수가 많고, 그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 용어들은 결코 '드립'이 아닌 '중병 회화'에 불과하다. 직간접적으로 그 질병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대중문화



##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 그냥 살게!

학생 에디터 김은지 dmswl90112@naver.com

드라마, 영화, 예능... 어떤 콘텐츠든 출연진의 외모 평가와 함께 시작한다. 작품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작발표회 기사 타이틀에선 '아찔한 각선미' '숨 막히는 뒤탈'이 빠지지 않는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일까? 유튜브에서 '뷰티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뜨는 채널 수만 729개다. 각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을 넘기도 한다. 분명 재미있다. 알찬 정보를 주기도 한다. 뷰티버들의 메이크업을 따라 하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얼굴로 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익함과 별개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콘텐츠를 소비해도 괜찮을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목주름없애기 #다리뽀빠기 #가슴커지기. 모 뷰티버의 콘텐츠 키워드다. 외모에 '이상적인 기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콘텐츠 자체가 미에 대한 강박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 애초에 외모에 대한 꾸준한 언급 자체가 '외모 차별'의 시작인 것은 아닐까?

TV 속에서도 외모 차별 콘텐츠는 끊임없이 생산되는 중이다. 드라마 주인공을 차지하는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은 주로 돈이 많고, 학벌이 좋은 상류층 주인공들을 연기할 때가 많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처럼, 화려한 얼굴로 화려한 삶을 사는 주인공 옆에는 푹푹한 얼굴로 서 있는 조연들이 있다. 물론 재력과 학벌 모두 주인공에 비해 뒤 떨어진다. 설령 그렇다. 특히 여주인공들의 절친한 친구는 대개 예쁘지 않은 외모 탓에 인기가 없고, 심지어는 어리바리하기까지 하다.

한편으로, 못생기고 뚱뚱해서 차별 대우받던 주인공이 예쁘게 변신한 뒤 돌아와 복수하는 스토리도 자주 등장한다.

그게 왜 복수일까? 변해야 하는 건 외모로 차별하는 사회인데, 손쉽게 주인공의 외모를 바꾼 후 외모 지상주의를 통렬히 비판 서사라고 자평하기도 한다. 이런 드라마로 일상을 채우는 동안, 우리는 무의식중에 외모 차별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모른다. 아니라면 타인을 깎아내리는 '얼평'과 '외모 지적'이 이렇게 당연해지진 않았을 것이다.

특히 예능 분야에서 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모 비하와 조롱으로 쉽게 웃음을 유발해왔던 길고 긴 개그의 역사 덕분이다. 최근 방영된 <무한도전> '셀럽파 이브' 출연 편은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멤버들의 얼굴 위로 '가위 놀릴 때 보던 얼굴', '섬뜩' 등의 자막을 사용해 비판받았다. 20대의 사랑을 받는 <김생민의 영수증>도 다르지 않다. 아예 게스트로 출연한 여성 개그우먼이 자신의 뚱뚱한 몸을 개그로 소비한다. 의도적으로 '얼평'을 일삼거나, 무의식중에 자처해서 본인의 외모를 비하거나. 어느 쪽이든 슬프기는 마찬가지다.

예뻐야 한다는 강박부터 '얼평', 외모를 조롱하는 것까지 모두 외모차별이 될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 10~20대 사이에서는 이 같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모 아이돌그룹 멤버가 추천한 나플라의 '꽃'이라는 노래를 소비하는 방식에 주목하자. 팬들은 "강남 코 조합 잘됐네" 등 외모를 충격적으로 평한 곡 자체와 이를 추천한 아이돌 멤버에게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모차별을 숨 쉬듯 해온 대중문화 콘텐츠도 이제 성장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라고 물어보는 콘텐츠는 소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편견에 갇히기보다 그냥 '나'로 살기를 택하겠다.



## 여군이 휴가 나가면 성형을 할 거라고?

학생 에디터 문소정 moonsojeong@naver.com

“나는 치마 입은 여자보다 스키니 입은 여자가 더 예뻐. 스키니 입었을 때 골반에서부터 딱 떨어지는 느낌.” 이게 무슨 망언이냐고? ‘남자들이 더 좋아하는 룩’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속 대사다. 영상은 여자를 ‘남자에게 잘 보아야 할 존재’로 표현하며 여성들의 코르셋을 조인다. 여기에 약 2천 명의 사람들이 ‘싫어요’를 눌렀고, ‘콘셉트가 단톡방 성희롱 인가요?’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회 수 3백만, 좋아요 1만 개를 받을 만큼 인기가 있었다.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콘텐츠는 게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남자 캐릭터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몸집이 커지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이 생기지만, 여자 캐릭터는 오히려 노출이 심해진다. 퀘스트를 깨는 것보다 남성 유저들의 눈 요깃거리가 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탓이다. 웹툰도 다르지 않다. <뷰티풀 군바리>는 ‘여자가 군 복무를 한다’는 설정을 담고 있다. 문제는 여성을 그려내는 방식이다. 연재 초반부터 가슴과 엉덩이를 노골적으로 부각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가학적인 구타 장면에서조차 여성의 신체는 성적 이미지로 전시된다. 여군은 휴가를 갔다 올 때마다 성형을 하고 올 것이라는 설정 같은 것도 여성에 대한 작가의 물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와 <미스터 션샤인>은 방영 전부터 논란이 됐다. 한국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다리 아저씨와 어린 소녀의 러브 스토리’를 연상시키는 캐스팅 때문. 작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런 드라마는 흔히 ‘어린 여자와의 연애’라는 남자들의 판타지를 자극하는 동시에 ‘어린 여자’를 ‘아저씨’들의 기를 세워주는 도구쯤으로 전락시킨다. 광고 속에도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 내포돼있다. 시스피커 광고를 보자. 아침마다 회사 갈 준비로 바쁜 여성에게 집에 있지도 않은 것을 내놓으라며 보채던 남편과 자식이 시스피커가 생긴 뒤엔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는다. 시스피커가 없었다면, 광고 속 가족들은 영원히 엄마를 들들 볶으며 모든 가사 노동을 엄마 몫으로 남겨뒀겠지.

얼마 전 리부트 판으로 개봉한 영화 <툼레이더>(2018)는 액션 영화 속 여자 주인공을 더 이상 ‘섹시한’ 전사로 그리지 않았다. 전작 <툼레이더>(2001)에서 주인공 ‘라라 크로프트’가 찢어진 민소매 티셔츠에 육감적인 몸매를 뽐내던 캐릭터였음을 생각해보면 큰 변화다. 이는 그간 영화 속 여성 캐릭터의 성적 대상화에 대해 끊임없이 불편함을 제기해온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편견 어린 콘텐츠에 대해 제작자만을 탓할 게 아니라 소비자들도 끊임없이 비판하고 불편함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다. 우리의 피드백으로 콘텐츠는 바뀌기 시작할 테니까.



# 혐오 차별

# 미디어 속



## 영화가 장애인·인종 차별에 기름을 붓는다

학생 에디터 김혜원 ganwlog@naver.com

“초원이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 모두가 아는 감동적인 영화 <말아톤>. 자폐증을 앓는 초원이가 장애를 딛고 마라톤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최근에도 자폐 장애인을 다룬 영화가 하나 개봉했다. 이병헌과 박정민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그것만이 내 세상>이다. 시기는 <말아톤>과 10년이나 차이가 나지만, 내용이나 전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는 비슷하다. 처음에는 웃기고, 끝에 가서는 불쌍해진다. 달고 나오는 타이틀 역시 뻔하다. ‘웃음 백배, 감동 백배’.

먼저 초반부를 보자. 영화 속 진태는 혼자 씻지도 못한다. 어머니가 다 큰 진태를 씻기는 장면은 진태가 피아노와 게임을 빼면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못 박는 것 같다. 장애인들은 언제나 주체적인 인간임을 부정당하고, 누군가 지켜줘야 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스꽝스러운 사고를 저질러버리니까. 발달장애는 그저 유머 코드에 불과하다. 영화에서 진태는 버스에서 갑자기 똥이 마렵다고 뛰어 내려가 아무 데서나 불일을 본다.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발달 장애 증상을 우습게 짜깁기해버린다. 결론은 또 어더한가. 언제나 눈물바다다. 장애인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꼭 눈물겨운 성취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히 신파의 한 장치로 소모된다. 장애인의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 사랑 이야기는 영화가 될 수 없을 까? 그런 평범함을 누리기 힘든 ‘불쌍한 사람들’이라서? 아직까지도 한국 영화는 장애인을 ‘딱한 사람들’로 그려낸다. 영화가 앞장 서서 불편한 편견을 더하고, 장애인들의 존엄성까지 빼앗고 있는 셈이다.

한편, 아무 개연성 없이 조선족과 그들이 사는 대림동을 범죄의 소굴로 만드는 영화들도 있다. “이 동네 조선족들 많

이 사는데, 밤에 칼부림도 많이 나오. 여권 없는 범죄자들도 많아서 경찰들도 잘 안 들어와요.” 조선족이 많이 모여 사는 대림동을 지나며 택시 기사가 말한다. 그리고 경직된 두 청년의 얼굴이 보인다. 그들이 용기를 내 들어간 그곳에는 소녀들을 납치해 난자를 강제 적출, 매매하는 조선족이 있다. 영화 <청년 경찰>이다. 잔혹한 살인도 서슴지 않는 조선족 폭력배가 스토리의 주요 축으로 등장하는 영화 <범죄 도시>도 있다.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얘기한다. “아니, 대림동이 그렇게 무섭다며?”

한국 영화는 오랫동안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이용하고 있다. 2010년 <황해>에서부터 2014년 <차이나타운>, 그리고 2017년 <청년 경찰>과 <범죄 도시>까지. 조선족은 흉악한 폭력 조직이고, 그들의 거주지는 범죄소굴로 그려진다. 실제 조선족의 생활은 중요하지 않다. 억울한 사람들이 매체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들에 대한 편견은 낙인처럼 계속 남아 있다.

영화 속에서 소수자가 맡는 역할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 장애인은 신파 장치, 조선족은 잔혹한 악역... 그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기에 ‘그런’ 캐릭터로만 등장하는 걸까? 아니다. 우리의 막연한 편견을 바탕으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이를 또 무감각하게 소비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 천만 관객 영화의 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영화가 사람들의 인식에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심어주었다면, 분명 반성해야 할 일이다. 흥행 코드로 이용하며 굳이 증폭시켜주지 않아도, 이 사회의 혐오와 증오는 이미 저항할 힘이 없는 소수자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예능이 홍석천을 소비하는 방식

학생 에디터 김혜원 ganwlog@naver.com

남자 출연자들 중 '이상형'을 고르라는 요구가 나온다. 함께 출연한 여자 연예인과 같은 인물을 지목하자 '일반적이지 않은 삼각관계'란 뉘앙스의 자막이 깔린다. 얼마 전,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한 홍석천의 모습이다.

예능 속 홍석천은 늘 '우습다'. 다년간의 방송 경력으로 검증된 입담과 재치를 지녔음에도 그는 매번 '말'보다는 자신의 '성적 지향'으로 웃음을 준다. 예능에 출연할 때마다 남성 출연자 중 한 명을 ' 짹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의 숙명이다. 홍석천이 한 명을 지목해 "내 스타일"이라고 말하면 주변에선 "조심하라"는 농담이 이어지고, 지목된 당사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 반복된다. 예능에 종종 등장하는 이성애 '러브 라인'과 달리, 홍석천의 '짹사랑 라인'은 언제나 우습게만 그려진다.

이 정도 '우스움'은 약과일 때도 있다. 재작년 종영한 tvN <코미디 빅리그>의 코너 '여자사람친구'는 트랜스젠더를 노골적으로 희화화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옛날엔 서서 싸고, 지금은 앉아서 싸고' 같은 대사를 내뱉고, 친구인 남성에게 추근대는 식이다. 이 코너를 언급하는 이유는 종영 후에도 여전히 페이스북에서 '짹방'으로 회자되며 4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기 때문이다. 댓글엔 'ㅋㅋㅋ'가 난무한다. 그 사이 성 소수자의 존재는 가벼운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린다.

최근 EBS <까칠남녀>에서 강제 하차당한 섹스칼럼니스트 은하선의 기사엔 약풀이 줄을 이었다. 행동이나 언행을 문제 삼기보다 바이섹슈얼이라는 그의 성적 지향을 욕하는 내용이 더 많았다. '더럽다'는 글부터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들이 댓글창에 가득했다. 성 소수자를 희화화하고, 그들을 향해 생각 없이 'ㅋㅋㅋ'를 날리던 우리 사회의 무딘 감수성이 결국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폭력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닐까. '예능 속 홍석천이 불러온 나비효과'가 이렇게 나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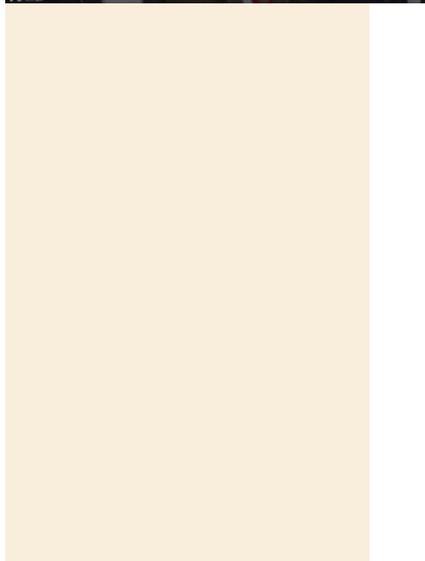
## 퀴어는 열린 지갑이 아니다

WRITER 오현지

"Love Sees No Colour" '피카부' 뮤직비디오 속 레드벨벳 멤버들 의상엔 이렇게 적혀 있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캐치프레이즈인 "Love Sees No Gender"를 살짝 바꾼 문구다. '무지개 색(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상징)' 의상은 이 문장과 어울려 더욱 퀴어-프렌들리하게 다가온다. 퀴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부탁하기 위한 의도였을까? 전혀 아니다. 기획사가 팬덤 내부에 퀴어 관련 메시지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타깃팅한 것뿐이다.

'퀴어베이팅'이란, 성 소수자나 퀴어 친화적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케팅에 성 소수자와 관련된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끼워넣지만, 성 소수자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현상을 말한다. 작년 11월 개봉한 영화 <메소드>가 그 예다. 주연 배우가 시사화에서 직접 "<메소드>는 퀴어(관계를 다룬 작품)"라고 언급했으나, 정작 감독은 "두 배우의 멜로를 그리고 싶었을 뿐, 퀴어 영화로 만든 건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는 알뜰한 상술이 아니냐며 분노했다.

퀴어베이팅을 활용한 마케팅은 확실히 악질적이다. 성 소수자나 그들과 연대하는 소비자들은 퀴어를 다룬 작품들을 적극 소비한다. 소비가 곧 해당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행위이자, 궁극적으로 한국 내 성 소수자 인권을 개선할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미디어 산업 마케터들은 상품에 퀴어 코드를 몰래 끼워 넣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손쉽게 획득한다. 그러나 결국엔 성 소수자들을 자극적인 이미지로만 묘사하거나, 퀴어물이 아니라는 한마디로 그들의 존재를 부정해버린다. 성 소수자가 삶 속에서 겪는 혐오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들의 '핑크 머니'에만 눈독 들이는 비겁한 전략은 언제쯤 끝이 날까.



# 혐오 차별



# 혐오의 자유는 없다

## 혐오와 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는가?

WRITER 황효진 칼럼니스트

최근 레드벨벳의 아이린은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말했다. 『82년생 김지영』은 그동안 여성들이 삶 속에서 겪어왔던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는 이야기이고, 일부 남성 팬들은 '내가 쓴 돈 덕분에 먹고사는' 아이린이 페미니즘 소설을 읽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블로그에 '매갈 뽀뽀지들의 우상 아이린'이라는 제목과 함께 아이린의 사진을 올려두었다. 어째서인지 일부 남성들의 인식 속에서 페미니스트란 똥똥하고 못생긴 여성의 모습으로 존재하며, 때문에 그들은 종종 '돼지'라는 단어로 페미니스트들을 공격하려 한다. 단지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이들을 비하한다는 점에서,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고 비난한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혐오 표현이다.

이런 말들은 보통 여성을 비롯,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의 약자들에게 향한다. 혐오 표현은 '내가 공격해도 반격해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수시로 쏟아지며, 그들의 존재 가치를 폄하하고 위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누군가를 개별적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고 한데 묶어 부정적으로 라벨링하는 것이다. 얼마 전 김부겸 의원은 이런 발언을 규제하자는 내용의 혐오표현규제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로 보름 만에 철회해야 했다. 사실 혐오 발언을 법으로 막기란 쉽지 않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인지 법으로 일일이 정할 수도 없을뿐더러 국민의 말과 글을 국가가 법으로 통제하는 일은 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핑계 삼아 얼마든지 혐오 발언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장애인과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혐오하고, 그 혐오를 마음껏 드러내도 괜찮은가? 혐오할 자유라는 말은 성립 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몇 년 전 퀴어문화축제에서 겪었던 일을 떠올리게 된다. 축제가 진행되는 서울시청 광장 맞은편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세력이 동성애 혐오 문구를 크게 내걸고 또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거둬드는 혐오 발언을 듣고 또 들을수록 저들이 시청 광장에 모인 성 소수자들을 실제로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누구도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 또한 공포스러웠다. 그것은 호모 포비아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표현의 자유를 말하며 성 소수자들을 탄압할 수 있다는 선언처럼 보였다.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혐오 발언은 단지 말과 글에서 그치지 않으며, 직접적인 가해로 이어지거나 당사자 스스로 위축되게 만든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급을 나눈다. 혐오 표현 안에서 한국 사회의 약자들은 쓸모없는 존재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낮은 레벨의 인간들로 취급받는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통쳐질 수는 없다.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분야를 막론하고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은 여성이 그 어디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여성을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대상화하고 폄하하는 혐오 표현들이 농담인 척, 별 것 아닌 말인 척 쌓이고 쌓이며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러도 되는 분위기를 만든 건 아닐까.

그래서 결국, 답은 교육이다. 약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알려주는 교육. 혐오 표현은 취향과 의견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같은 사회 구성원을 대하는 윤리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는 걸 어린 시절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말이다.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가르쳐야 한다. 예전에는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발언들이 현재는 혐오 표현으로 인식되듯,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우리는 불편함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한명 한명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라,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원론이 해답일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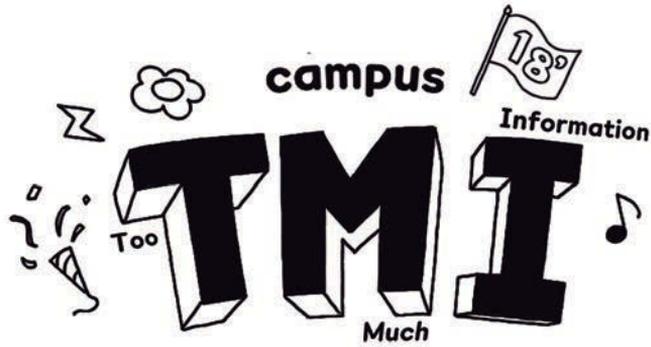
# 사칭에 속지 마세요

대학내일 사칭이 의심되면 꼭 확인하세요!

대학내일과 대학내일 기자, 리포터, 직원을 사칭해 대학생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때 미심쩍은 생각이 들면, 대표전화(02-735-3800)로 연락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학생리포터나 기자, 에디터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취재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전화나 메일, 메신저 등으로 대학내일이라며 접근해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경우
- ↳ 명함이 없다고 하거나 본인의 이름과 직함, 소속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 ↳ 종교 활동이나 불법 상행위 같은 대학내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기타 대학내일로 보기에 미심쩍은 활동이나 언행을 하는 경우

최근 몇 달간, 제보를 통해 사칭하는 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친숙한 <대학내일>의 이름을 빌려 대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 성균관대 편

01

성균관대는, 1398년에 설립된 조선의 국립대학 '성균관'을 계승한 학교다

02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비각은 영조의 탕평비, 비석은 '이곳을 지나는 자, 모두 말에서 내리랴'는 뜻을 가진 하마비다

03

성균관대 국제관 앞 비천당은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을 치르던 장소였다



04

성균관대의 상징은 은행나무다



05

명륜당 경내에 있는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59호로 지정되어 있다

06

성균관대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공자의 사당을 찾아, 과거 성균관에서 치르던 '고유례' 의식을 행한다

07

입학식 날, 신입생 대표는 성균관 유생들이 입었던 '청금복'을 입는다

08

성대생들은 논어 수업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다



09

매년 공자 탄신일 (9월 28일)에 휴교한다



10

2010년, 성대 캠퍼스 예정 부지에서 통일신라의 돌방무덤이 발굴됐다. 사대문 안에서 신라 시대 유적이 발견된 건 처음이었다고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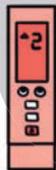
호암관과 수선관의 이름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내외의 호를 따서 붙인 것이다

12

학교가 북악산 자락에 위치해 건물 층수가 제멋대로다. 학생회관 3층과 경영관 지하 2층이 같은 고도에 있다

13

성균관대 인문관은 1층이 없다. 2층부터 시작한다



14

경제관 지하 1층에 인문대 과방이 있고, 인문관 2층에 통계학과 과방이 있다

15

법학관 옥상에 올라가면 남산타워와 63빌딩을 볼 수 있다. 야경 포인트로 저장





600년이나 됐다고?  
공자도 미처 몰랐던 알쓸신잡 성균관대 편.

16

성균관대의 기숙사  
'E 하우스'는 학교까지  
도보로 30분이 걸린다

17

인문사회 캠퍼스에는 정문,  
철문, 쪽문, 후문이 있다.  
+ 이름만 '문'이고  
통로에 가깝다

18

성균관대 경영관은  
정면에서 봤을 때  
책꽂이 모양이다



19

자연과학 캠퍼스에 있는  
삼성학술정보관은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열람실이 있어, 자리 때문에  
공부 못 할 일은 없다

20

2017년, 생명과학과  
77번 사물함에서 현금  
2억원이 발견됐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졌다

21

성균관대 화학과의 FM은  
'이걸화학'이고,  
전자전기공학부 FM은  
'시발(始發)전전'이다

22

성균관대 셔틀버스 운임은  
300원이다. 얼마를 내든  
거스름돈은 주지 않는다



23

성균관대 인문사회  
캠퍼스에는  
너구리가 종종 놀러 온다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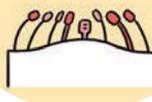
작년 성균관대 대동제의  
이름은 '성대결절'이었다

25

1995년, 본고사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 영화  
<부러진 화살>로 유명한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26

서태지와 아이들은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27

05학번 송중기는  
2008년부터 성대 홍보  
책자 'Kingo'에 등장했고,  
2013년까지 최장기 학교  
모델의 기록을 남겼다

28

사회과학계열로 입학해  
경영학과로 진입한  
중기 선배는, 사과대  
시사토론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29

스윙스는 영어 특기자로  
영어영문과에 입학했다가  
자퇴했다

30

얼굴 천재 아스트로  
차은우는 성대 연기예술학과에  
재학 중이며, 가끔 수선관에  
출몰한다

EDITOR 정하나 hana.dor2ee@gmail.com  
INTERN 최은유  
DIRECTOR 김슬  
ILLUSTRATOR 김지현

# 알바계의 해병대, 뷔페 알바의 고충

알바X 자주 들어가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공고가 뷔페 알바야. '알바계의 해병대'라고 불릴 만큼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원 안 하려고 했는데, 알바 구하기 힘든 방학 시즌이라 어쩔 수 없이 지원하게 됐어. 생각보다 쉽게 구해지더라고? 그런데 일은 안 쉽더라? 진상은 기본이고, 몸은 몸대로 써야 하더라고. 웰컴 투 헬^^

EDITOR 송영임 youngimmm68@naver.com INTERN 최은유 ILLUSTRATOR 백나영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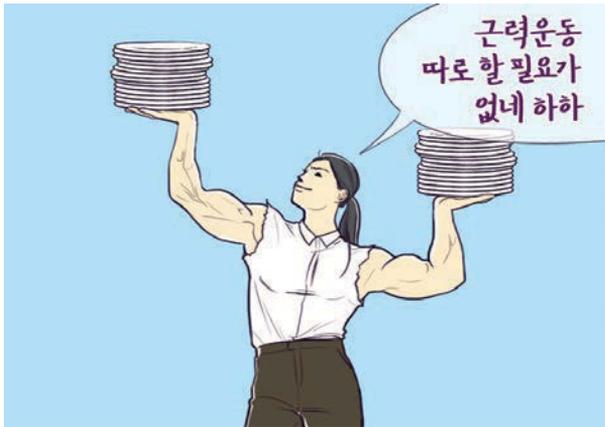
### 남들 놀 때 제일 바쁨

남들 놀 때 바쁜 건 서비스 알바의 운명이지만, 뷔페는 단체 손님이 많아서 심리적으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가족, 친구, 연인들로 가득 찬 매장에서 일하고 있으면 나만 혼자 못 놓고 일하는 것 같아서 서러워지거든. 특히 2월에는 졸업식, 입학식 시즌이라 엄~청 바빠. 하루에 700명의 고객을 맞아본 적 없다면 모를 거야 이 기분^^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만석이 계속 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어. 구역마다 포지션을 나누어서 일하지만, 어디가 되든 상관없어. 어디든 바쁘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접시 치우고 테이블 정리하는 사람, 처음에 고객 안내하는 사람, 음식 진열대 관리하고 부족한 음식 채우는 사람, 잔반 처리하는 사람, 결제하는 사람. 크게 이렇게 나뉘어. 물론 어느 포지션이든 간에 고객들의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하는 건 기본이겠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 그렇게 내 주말은 순식! 내가 주말을 즐겨 본 게 언제더라...(눈물)

## 02

### 쌈타이엔 최적

진상도 많고, 체력 소모도 많은 이 알바를 왜 하나고? 같이 일하는 또래 동료들이 많거든. 그리고 일이 힘든 만큼 애들이랑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 서로 공감되는 일이 많으니까. 힘쓰는 일이 잦아서 서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연애하기 좋은 알바'로 알려져 있는 것 같아. 틈날 때마다 점장님 눈치를 살피며 소곤대다 보면 근무 시간 내내 마음이 그렇게 간질거릴 수가 없더라고? 일은 힘들어도 썸 타기에는 딱! 좋은 알바가 아닐까 싶어. 또, 같이 퇴근하는 애들끼리 자주 회식을 하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일하면서 퇴근하고 뭐 먹을지 정하는 것도 소소한 재미지. 직원들 몰래 무전기로 정하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스릴 있디니까? 연애를 못 하더라도 평생 친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전우애(?) 같은 게 생겨서 서로 끈끈해지거든.



### 03

#### 왕팔뚝을 조심해

뷔페 알바 어느 정도 했다는 애들 팔 보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굵기가 다른 거 알아? 난 신입 때 계속 팔에 알 배겨서 죽는 줄 알았어. 뷔페 알바 특성상 들고 다닐 게 많으니까 힘들 일이 많아서 적응하는 게 힘들더라고. 오죽하면 알바계의 '해병대'라 불리겠어?

처음에는 무거운 박스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접시를 아~만큼 쌓아서 척척 잘 들고 다녀(25개가 내 최고 기록인데 곧 이 기록도 깨질 듯해). 내가 팔 힘이 좀 좋다! 아니면 팔 힘 좀 키우고 싶대 하면 뷔페 알바를 추천할게. 물론 의도치 않게 한 쪽 만 근육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고^^

### 05 甲질이 풍년이오~



### 04

#### 음식물 쓰레기는 내 친구

음식을 다루는 뷔페 알바생이 음식물 쓰레기를 마주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 테이블 정리할 때는 물론이고, 주방에 들어가서 남은 음식물들을 정리해야 하기도 하니까. 모아놓은 음식물 쓰레기 더미를 보는 게 덤덤해지기까지는 꽤 걸리더라...(휴) 원래 집에서 설거지할 때도 꼭 고무장갑을 끼고 했었는데, 알바 하다 보니까 맨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있더라고;;

테이블 정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발 음식 남겨도 되니까 남은 음식으로 알 수 없는 창작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온갖 음식들이 섞여 있는 걸 치우는 기분을 알면, 그 짓 절대 못 할 거야...

뷔페 특성상 다른 음식점과 비교해 단체 손님, 특히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상인 경우가 많지^^ 진상들 마인드의 기분은 이거야. '나는 이 많은 돈을 냈으니, 너희는 그만큼의 좋은 서비스를 해야 한다!' 요구 사항을 빨리 안 들어준다고 화내는 건 기본이야. 포크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냐, 왜 음식이 안 나오냐 등등. 5분만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도 불같이 화내. 우리가 놀면서 안 해주는 거냐고!

아이와 함께 오는 손님 중에도 진상이 많은 편인 것 같아. 대표적으로 애들이 매장 내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도 말리지 않는 고객들...(부들부들) 다른 손님들은 눈치 주지, 아이를 말리면 자기 자식한테 뭐라 한다고 짜려보지, 중간에서 나는 짜글이가 되는 거지 뭐. 일하면서 겪었던 최고 진상? 들어주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해서 거절했더니, 무슨 드라마 대사처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일한 지 얼마나 됐어?! 너 신입이지?!" 이러면서 샷대질했던 아줌마^^ 저 2년 됐는데요?^^



#당넬대숲

#핑크텍스

#평범한\_삶을\_원해요

당넬대숲 다섯 번째 사연은 ‘요즘은 여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 말한 동기와 대판 싸웠다는 E가 제보해주었다. 여자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불합리한 경험 7가지쯤 있잖아요. 돈, 시간, 감정 소비하느라 지친 여학우들 주목!

EDITOR 원더우먼 wonderwomen@univ.me \*열 받는 사연 제보 환영

INFORMER 얼마나 더 조심하고, 얼마나 더 불편하게 살라는 건지 어리둥절한 E

01

‘여성용’이 늘 더 비싸요

“전 코트나 점퍼는 남여 공용으로 사요. 여성용은 안주머니도 없고, 오리털 같은 충전재도 남성용보다 적게 들어가거든요. 면도기도 그래요. 여성용은 핑크색으로 칠했을 뿐인데 훨씬 비싸요. 다리 털 몇 번 밀면 날이 금세 무더지고요.”

여성용은 덜 실용적이고, 더 비싸다. 2015년 미국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유통되는 800여개 제품은 여성용이 남성용보다 평균 7%나 비쌌다고 한다. 기능면에서 차이가 없다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쪽이 더 비싸야 맞는 게 아닌가? 최근에는 일부 남성용 제품을 구입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점퍼, 속옷, 면도기, 기초 화장품 등 같은 기능이면 남성용을 구입하는 게 이득이니까. 이래도 핑크텍스가 없다고?

“

저도 자다 깨서 후줄근하게 택배 받으러 나가고, 안심 번호 없이도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배달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번호로 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문자에 소스라치는 게 아니라. 이미 생활 자체가 온통 불편함투성이인데, 사회는 뭘 더 내놓으라는 걸까요?”

”

04

술 취해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몽롱하게 좋아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마시는 건데도, 아주 친한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아니면 취하질 못해요. 안 친한 사람들은 제 주량이 센 줄 아는데 사실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죠. 혹시 일행을 택시 태워 보내면 번호판도 꼼꼼히 적어놔야 하고, 제가 택시 탈 때도 가능한 취한 티를 안 내려고 말수를 줄여요. 아니면 배터리가 없어 폰이 꺼졌더라도 남친과 통화하는 척하든지.”

누구나 마음껏 풀어지는 시간에도 여성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편하려고 타는 택시 안에서든 마음을 놓지 못한다. 택시 기사 아저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괜히 혼자 불안해지는 건 덤이다. 간혹 술에 취해 잠들면? 어떤 일을 당해도 위로나 동정은커녕 “그러게 왜 술을 마셔서”, “잠든 게 잘못”이란 소리나 들을 것이다.



05

여행 한번 가기 힘들어요

“방학 때 여행이라도 가볼까 하면, 돈이 아무리 없어도 너무 저렴한 숙소는 고려조차 안 해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 이후에는 걱정이 더 늘었거든요. 숙박 후기부터 게스트하우스 주인 SNS까지 이 잡듯 뒤지는 건 우리나라 여성들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행 전, ‘몰카 탐지 어플’을 깔아두는 건 기본 중 기본이구요.”

남학생들처럼 배낭여행하면서 캠핑하거나, 잔디밭에서 술 먹다 잠드는 낭만. 다 같은 청춘인데 왜 꿈꿔보지 않았겠나. 하지만 꿈도 함부로 꿀 수 없다. 위생을 따지는 결벽증 때문이 아니라, 자칫하다 생명의 위협도 당할 수 있어서다. 공중화장실 못 자국을 막아본 적 있는 사람, 집에 돌아와 침대 밑에 아무도 없는지를 살펴본 적 있는 사람만이 이 고통을 이해하겠지.



## 02

### 골목에선 이어폰 절대 안 꺼요

“머리를 단발로 자를까 고민 중이에요. 묶은 머리는 뒤에서 잡아채기 쉽단 얘길 들어서요. 동네 골목에 가로등이 별로 없거든요. 가격대에 맞추다 보니, 대로변도 아니고 인적도 드문 동네로 오게 돼서. 음악 듣는 걸 좋아하지만, 등하교 때 이어폰도 절대 안 끼고 무조건 빨리 걸어요. 계약 끝나면 빛내서라도 이사 가고 싶어요.”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혼자 살기. 매우 좋은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여자 혼자 이루기는 쉽지 않다. 여성이 체감하기에 한국은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총기가 없으면 뭘 해, 매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니 예산이 없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치안이 좋은 비싼 동네, 비싼 집을 선택할 수밖에. 머리 마음대로 기르고 음악도 듣고 싶으니까.



## 06

### 택배가 와도 마냥 뛰어나가진 못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가 와도 달려 나갈 수가 없어요. 집에서는 브래지어도 벗고 편하게 있으니까요. 집에 없는 척하고, 문 앞에 두고 가 달라고 하죠. 보일려나 에어컨을 고칠 때는 꼭 남자 지인을 부르구요. 기사님과 단둘이 한 공간에 있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요구하는 사항들은 무시당하기 일쑤거든요. ‘아가씨’가 뭘 아나면서.”

한 식당에서 배달 어플에 컴플레인을 남긴 여성 고객을 찾아가 따지고, 급기야 고객의 개인 신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사건이 있었다. 여성으로 산다는 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늘리는 것이다. 눈을 마주치며 노상방노하는 취객을 만나고도 길을 돌아가고, 빈 자리를 놔두고 굳이 내 앞에 온 아저씨에게 순순히 자리를 양보하는 것처럼.

## 03

### 바람에 흔들리는 도어락에도 괴로워요

“비교적 치안이 좋다는 오피스텔에 거주할 때도 있었어요. 우편함에 ‘성범죄자 거주 지역’을 알리는 고지서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 누군가 술 취해서 저희 집 도어락만 잘못 눌러도 심장이 떨렸죠. 그 사람은 한순간의 실수일 수 있겠지만, 전 밤새 잠도 못 자고 떨었습니다.”

비싸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여자더러 ‘조심하라’고 말하는 건, 주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일단 ‘의심’하라는 이야기와 같으니까. 문밖을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문. 사소한 모든 것에 예민해진다. 근데 조심하라 그럴 땐 언제고, 왜 ‘모두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며 상상분자로 몰아가는지... 역시 피해자가 조심해야 하는 사회답다.



## 07

### ‘아이스 아메리카노 Me Too’에 화낼 수 없었어요

“알바하는 카페 근처에 대기업이 있는데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와서 농담처럼 ‘Me Too’를 남발해요. 아이스 라떼 Me Too, 아이스 아메리카노 Me Too. 당연히 화가 나지만,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고용주인 카페 사장님부터 ‘펜스 롤’ 어떻게 생각하냐고 은근히 저를 떠보는데.”

여성들은 #MeToo 운동으로 성범죄 가해자들을 고발했다. 스스로 개인 정보를 낱알이 밝혀야 믿어주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 상, 인생을 건 제보였다. 그런데 이런 ‘Me Too’를 고작 농담으로 소비할 줄이야. 그 정도로 공감능력이 낮아지려면 무얼 먹어야 하나? 어쨌든 여성들은 일상에서 아무리 불합리한 말을 들어도 또 견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 안전할 테니까.

# 을의 하루

## 엔터테인먼트사 홍보팀 편

“저... 그만됐어요.” 퇴사자 속출로 인터뷰이 물색부터 난관이었다. 연예인들과 폼 나게 일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회사 안에서도 기자 앞에서만 ‘을’이었다고. 그런데도 고스펙자들이 하고 싶어 줄을 선다는 엔터테인먼트사 홍보팀, 그 짠내 나는 하루를 들여다봤다.

EDITOR 서재경 suhjk@univ.me  
사진 출처 SBS <케이팝스타>·JTBC <청춘시대2>

이런 주 '을'을 소개합니다



입사 2년 차. 유명 배우들이 많이 소속되어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엔터테인먼트사 홍보팀 직원. 잘생긴 연예인들 틈바구니에서 화려한 말발로 기자들을 휘저으며 행복하게 일할 줄 알았건만. 지금은 오늘 퇴사할까 내일 퇴사할까를 고민하는 퇴사 꿈나무다.

How do you do?

### 하루 일과

**8:30AM** 출근 전, 보도 자료 전송. 9시 전에 메일을 보내놓아야 기자들이 출근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 기자보다 한발 빠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홍보팀의 숙명!



**9:00AM** 회사 출근. 제일 먼저 소속 연예인들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꼼꼼히 한다. 아침에 뿌리고(?) 나온 보도 자료가 얼마나 기사화되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11:30AM** 점심시간. 약속에 따라 유동적이다. 매체 기자들이나 업계 사람들을 만나 밥을 먹으며 식사를 가장한 미팅을 한다. 일의 연장이기 때문에 '뱍카'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장점. 홍보팀 직원에게 '훈밥'은 사치다.

**01:00PM** 대형 엔터사를 제외하곤, SNS 관리 및 콘텐츠 제작도 홍보팀의 몫이다. 팀장님으로부터 "인스타그램 문구 짜 외"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신박한 문구를 대령해 컨펌 받아야 한다. 덕분에 드립력은 날로 향상 중. 소속 연예인이 작품을 하고 있으면 촬영장에 가서 비하인드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도 한다. 오후엔 소속 연예인 스케줄에 따라 외근이 많은 편.

**07:00PM** 저녁 미팅. 종종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08:00PM** 퇴근인 듯 퇴근 아닌 귀가. 집에서든 소속 연예인이 출연하는 방송을 모니터링해야 하기 때문. 드라마는 왜 때문에 밤 10시에 하는 거죠?

### 핵심 정보



**하는 일** 보도 자료 작성, SNS 관리, 블로그 포스팅, 소속 연예인 기사 모니터링이 주요 업무. 요즘엔 갤러리 등 주요 커뮤니티를 '눈팅'하는 것도 필요하다. 매체에서 요청하는 소속 연예인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기자들을 응대한다.

**초봉** 평균 초봉 2000만원 미만.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은 그마저도 80%만 주는 곳이 많음. 월급 200만원 넘는 곳은 극히 드물다. 최악의 경우, 월급이 80만원인 곳도 있다고.(고소할까?)

**업무 강도** 활동 중인 연예인이 많으면 주말에도 거의 쉴 수 없다. 소속 연예인이 작품에 들어가면 친구들에게 미리 작별을 고해야 한다... 팬미팅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주말 출근 확정! 평일에 행사 잡히면 강제 야근 8시에 퇴근하면 운수 좋은 날!

**근속 연수** 1년 미만으로 일하고 업계에서 영영 도망가버리는 이들과, 5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들로 양분화되어 있음.

**복리후생** One and Only 점심 제공.(회사마다 다름) 간혹 엔터사의 특징을 살려 '문화의 날' 같은 행사를 하는 곳도 있지만, 그냥 집에 빨리 보내줘.

입사 꿀팁



연예인들이, 사귀기 전에 미리 말해. 제발. (feat. 진명 선배)

#### 입사 전형은 이래요

공개 채용 또는 업계 관계자의 소개를 통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공개 채용의 경우, 서류 전형-면접-합격의 단계를 거친다. 규모가 큰 엔터사는 면접을 두 번 보기도 한다.

#### 이런 스펙이 있으면 좋아요

한류로 인해 외국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일본어를 잘하면 유리하다. 대형 엔터사에선 동남아 국가 언어 특기자를 선호하기도 한다. 사진, 영상, 포토샵 등도 잘하면 입사 후 써먹을 일이 많다.

#### 이런 사람에게 잘 맞아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잘 빠르게 대처하는 순발력, 악담을 들어도 견딜 수 있는 멘탈, 사교적인 성격, 소속 연예인의 뒷배기를 전하지 않는 무거운 입을 가진 사람이면 좋다. 무엇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어야 힘든 순간을 견디며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다.

**팩트 체크**

**일반 기업 홍보팀과 하는 일이 다른가요?**

"일반 기업 홍보팀은 회사 자체를 홍보하지만, 엔터테인먼트사는 회사 자체보다 소속 연예인을 홍보한다.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제작발표회, 심지어 화보 촬영장까지 연예인들의 스케줄을 따라다니며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 인터뷰할 때 소속 연예인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면 그걸 수습하기도 하고. 회사 내근 시간이 3~4시간밖에 안 될 만큼 외근이 잦다."

**대중의 일 때문에 밤낮없이 부르기만**

**한다던데 정말 그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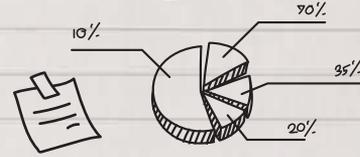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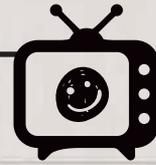
"그런 회사도 있다고 들었다. 퇴근했는데 구남천처럼 밤만 되면 카톡이랑 전화가 온다고(※우리 회사 얘기 절대 아님) 들려오는 소문에 대형 엔터사 중 한 곳의 대표가 홍보팀을 그렇게 찾는대더라. 그 회사 직원들이 말라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사실 나도 예전에 그 회사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아예 내놓고 '24시간 대기조 가능' 하냐고 물더라. 면접에서 떨어지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해인데 출신들이 많다던데 고스펙자만 뽑는 건가요?**

"3대 기획사라고 불리는 대형 엔터사엔 고스펙 지원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앞서 얘기한 대형 엔터사 면접 경험을 좀 더 털어보자면, 1차 면접에 5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 2명이 해외대생이더라. 그러나 대다수 엔터사는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경험 있는 지원자를 선호한다. 보도 자료 작성이나 SNS 홍보 경력에 있으면 유리하다. 지원자가 연예인의 팬이라서 호기심으로 입사한 경우, 업무 내용이 외부에 누설되는 경우도 많아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도 한다."

**소속 연예인 때문에 멘붕 온 적도 있나요?**

"열애설 터졌을 때 특히 미리 알지 못했던 열애설이 터진 경우엔 멘탈이 바스라진다.(연예인들야 사길 거면 미리 얘기해, 제발) 회사를 대표해 입장을 발표해야 될 때면 조심스러워진다. 내가 뺀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화되니까. 게다가 모든 매체에서 동시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정신줄을 놓지 않는 것만도 어려운 일이다. 음, 이건 멘붕까지는 아닌데 가끔 매체의 요구로 연예인의 인증샷이나 사진 등을 받아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예인이 기분이 안 좋으며 부탁을 안 들어주더라. 그럴 땐 명치를 세계 때리고 퇴사하는 상상을 해본다."



**팬들한테 실제로 전화 폭탄을 많이 받나요?**

"SNS 메시지나 메일 폭탄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팬 카페에 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전화는 '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많이 오진 않는다. 요즘엔 소속사가 팬들에게 피드백을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 회사 이미지가 좌우되기 때문에, 팬들의 의견을 단순히 '폭탄'으로 넘기지 않고 응대해줘야 한다. 팬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다른 엔터사로 이직은 활발한 편인가요?**

"경력이 있다면 다른 업종에 비해 이직이 쉬운 편인 것 같다. 보통 1년 이상 일하면 다른 엔터사로 이직이 가능하다. 아예 다른 분야의 홍보로 빠지기도 한다. 이직할 땐 전 회사와 기자들 사이에서의 평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직 생각이 있다면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쌓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기자들을 자주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든 점은 없나요?**

"간혹 회사의 입장 때문에 기자들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테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간 기사의 헤드라인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소속 연예인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민감한 내용을 빼달라고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럴 때 기자님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원하는 바를 취해야 하니 힘이 때가 있다. 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심한 성격이면 이런 업무가 괴로울 수 있다."

**일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엔터사 직원들은 소속 연예인이 다 내 새끼 같다.(욕 아님) 작품이 잘 되고, 대중으로부터 연예인이 인정받으면 덩달아 기쁘다. 가끔 연예인들이 홍보팀을 잊지 않고 수고했다며 인사를 건넬 때면, 부모의 마음으로 진심 감격한다. 팬들에게 소속사가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때나 내가 쓴 보도 자료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장식할 때도 소소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대표님이 보고 계셔(…)



# 우리에게는 약간 불편한 관계가

## 필요하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앞으로는 여직원을 뽑지 않겠다.” “앞으로는 남직원이 여직원에게 아예 말을 걸지 않게 될 것. 직장 내 인간 관계가 삭막해질 것이 우려된다.” “실수 좀 했다고 해서 남자 인생을 파탄 내다니, 돈을 노린 복수극이다.” “예민한 여자들은 역시 사회생활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

최근 ‘미투 운동’에 따른 2차 가해의 예를 든 것이 아니다. 1994년, 우리 사회에 처음 ‘성희롱’이 문제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을 당시 시민들의 반응을 정리한 것이다. 국내 최초 성희롱 소송이었던 ‘서울대 신 교수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993년 서울대 신 모 교수는 우 조교에게 의도적으로 몸을 밀착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 우 조교가 이를 거부하자 신 교수는 애초 약속했던 재임용 추천을 거부했고, 우 조교는 면직되었다. 대자보를 써 교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한 그는, 변호사와 상담하던 중 자신이 당한 내용이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이며 외국에서는 이미 법적인 규제책이 있음을 알게 된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던 1970년대에 처음 사용되었다. 직장에서 남성 상사가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용 관련 불이익을 주는 사건들이 늘어났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를 느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희롱’이라는 용어조차 없어 이 같은 미국의 사례와 용어를 참고해야 했다.

“앞으로 여성은 취업에 더 불리해질 것” “한국 정서와 맞지 않는다” 같은 여론 사이에서 이 사건은 6년간 지난한 법정 싸움을 거쳐야 했다. 1998년 결국 대법원은 이것이 직장 내 성희롱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1999년 남녀 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 금지를 명시하는 데 혁혁히 기여한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무서워서 여직원에게 무슨 말을 못 하겠다” 같은 푸념이 쏟아져 나왔다. 우 조교의 손을 들어주었던 1심 재판부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항의 전화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한 반응들을 보면, 이 같은 20여 년 전의 풍경이 겹쳐 보인다. 당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성적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서구의 판례와, 분명히 그와는 거리가 먼 우리의 관심과 인식 사이의 어딘가에 낙점을 해야 한다”며 훈계했던 언론사는 지금, 미투 운동 관련해 여성과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는 ‘펜스룰’이 합리적인 여론인 듯 보도한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문제 되면 골치 아프니 일에서 아예 여자를 배제하지는 말이 힘을 얻는 이 상황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친근감의 표시와 성희롱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상식적인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말일 것이며, 또는 그 차이를 몰랐어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처럼 들린다.

정상적인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눈치가 있는 이들이다. 국어사전에서 ‘눈치’의 뜻은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눈치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어떤 기분을 느낄지 예측하는 감정 센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눈치를 본다. 그렇기에 이 능력은 불편한 환경일 때, 사회적으로 약자일 때 발달하기 마련이다. 연애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조직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은 열심히 눈치를 본다. 회사에서 과장보다는 사원이, 군대에서 상병보다는 이병이 눈치를 훨씬 많이 보는 건 그래서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 배려하고, 실수했다면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사람은 성장한다. 눈치를 자주 보게 되면 내 행동으로 미루어 상대의 기분을 짐작하는 센서의 능력치가 커진다. 상대방 표정이나 말투의 작은 변화에도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구나’ ‘이 사람은 이걸 싫어하겠구나’를 빠르게 읽어 낸다. 이 능력은 자주 사용하면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화된다. 의미 있는 행위지만 고도의 감정적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다.

때문에 권력관계에서 갑일수록, 편한 환경일수록 눈치를 보지 않는 이들이 늘어난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자신의 눈치를 살피서 맞춰준다는 걸 연연중에 느끼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가 편안한 관계에 익숙해지면 맥락을 읽는 감각이 퇴화된다. 그리고 나면 ‘자기에게 맞춰주는’ 권력관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어딜 가서든 자길 대접해달라며 “내가 누군지 알아?”를 외치는 사람들의 행태는 바로 이런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편한 관계에서만 있었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참아주거나 자신이 갑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는 뜻이다. “이제 여직원(아랫사람) 눈치까지 봐야 하나?”라는 질문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답해주자. 그간 사람들이 누렸던 편안함 뒤에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권위주의와 갑질, 약자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저런 신경을 쓰는 것이 불편하니까 배제시키자는 태도의 펜스룰’이 합리적인 양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간 신경을 안 쓴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상사는 후배의 눈치를 보고, 병장은 이등병 눈치를 볼 때 이 사회의 고질적 갑질이 줄어든 것이다. 소수가 편하고 여러 사람이 심각하게 불편한 것보다는 다 함께 조금씩 불편한 편이 훨씬 좋다.

**사람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적당히 불편한 관계들이  
있어야 한다**

기묘년의 끝말 퍼즐

시간도 때울겸, 상식도 쌓기에 겸

01		02			03						
								02	04		
		03	05						04		
	05				06	07		06		08	
			07	09	10						
	11							08			
	09					10					
								11	12		
			13		14						
13								14	15		
					15						

WEEKLY GIFT



퍼즐을 완성해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에 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대학내일 #무엇이든쓰게된다

세 분을 선정해 소설가 김중혁이  
처음으로 밝히는 글쓰기  
비법 '무엇이든 쓰게 된다'를  
드립니다!

BOOK  
'무엇이든 쓰게 된다'  
김중혁, 위즈덤하우스

843호 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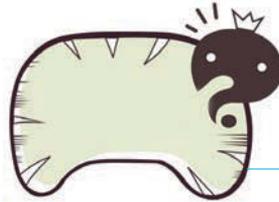
		하	세	광	아	카	사	카			
	록	산	게	이	장	이	사	산			
	스	키		프	랜	시	스	맥	도	맨	드
		추	오	장	스					라	
	셀	럼	파	이	브		마	윤	아		
		춤	워드	프로	세	서					
	마	우스	터		니	인	두	겁			
	도			지	에						
	환	절	기	미	공	등	정	범			
		자	집	배	원	서					
	학	생	회	관	현	주	경	야	독		
		견	섬	진	강						

### 가로 열쇠

- 01 김숙, 김생민, 신봉선, 김신영, 안영미 등 크게 드러나지 않은 후배들의 장점을 알아보는 안목으로 새로운 리더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방송인. <비밀보장>을 시작으로 <김생민의 영수증>, '셀럽파이브'까지 연거푸 대박을 터뜨려 '미다스의 손'이라고까지 불린다. #개그계의안경선배 #뛰어난기획력과인재를보는눈
- 02 특이한 일이나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돌+아이'와 일맥상통한다. 과상망측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만 갖고 있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뽐내기도 한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천재에게는 대부분 'OO'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허경영 #셜록홀مز #토머스에디슨
- 03 1인 출판사 코난북스, 제철소, 위고 세 곳이 공동 기획·출판하고 있는 문고판 시리즈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라는 주제로 피트니스, 서재, 게스트하우스, 쇼핑, 망원동, 스위트, 계속, 택시, 스릴러 등을 다뤘다. \*OOO, 퍼즐도 내줬으면 좋겠다.
- 04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징계처 처분. 이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작년 3월 10일, 생중계로 탄핵 재판을 지켜보던 국민 모두가 이 단어를 알게 됐다. "주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OO한다."
- 05 1)홍어로 유명한 섬. 2)뭇 건지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다 검게 타 버린/ 검게 타 버린! OOO 아가씨) 3)몇 번째 소규모 공항 건설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 06 FC 바르셀로나의 브라질 출신 공격형 미드필더. 얼마 전까지 리버풀 공격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브라질 선수로는 EPL.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바르셀로나 이적설과 관련해 끊임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결국 어머머만한 이적료를 남기고 떠났다. #필리페 OOO
- 07 National Rifle Association. 미국 최대의 총기 옹호 집단. 회비 내는 정회원만 500만, 한 해 수입만 4억 달러 이상이라 의회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한다. 이곳의 슬로건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총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을 죽이는 건 사람이다."
- 08 바로크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성악곡의 형식. '노래하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에서 파생된 말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롯데칠성의 캔커피 브랜드로 더 익숙하다. #바흐 #재가그냥커피라면너는티오피 #개가그냥커피라면너는OOO
- 09 '신(神)의 출현'을 뜻하는 그리스어. 작가가 일상의 어느 순간 우연히 맞닥뜨리는 '진실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경영학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한 기존 인식에서 벗어남으로써 혁신을 이뤄내는 전략을 뜻하기도 한다.
- 10 1)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2)"그래, 끝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쓸려/ 그저 뒤돌아본 채로 떠밀려왔지만/ 나의 기쁨이라면, 그래도 위안이라면/ 그 시절은 아름다운 채로 늘 그대로 라는 것" 3)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유해가 2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통영 국제음악제.
- 11 편의점 냉장고에 있는 걸 보면서도 섣뜻 꺼내기 부담스러운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 12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이자 매스스타트 초대 챔피언. 지금까지 올림픽에서만 총 5개의 메달을 따냈다. #진라면
- 13 리처드 도킨스의 대표작. 진화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14 미국의 '악명 높았던 피겨 선수 토나 하딩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 미국 사회로부터 철저히 억눌려 왔던 그의 입장에서 그 당시를 바라본다. #마고로비 #트리플악셀실화나
- 15 Q: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A: 아니, 친구 만나러 왔다가 가깝기도 해서 너도 볼 겸 OOOO-. #이거하는김에저것도하는거야 #도랑치고가재잡고 #

### 세로 열쇠

- 01 아역 배우로 데뷔한 이래 연기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더욱 화려한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예술인. 바인어 뮤지컬 <난타>를 기획해 세계에 수출하며 공연 제작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개회식·폐회식 총감독을 맡아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02 이것을 빼놓고 플라톤 철학에 대해 논할 수 없다. '보다, 알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말로, 실제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사물의 순수하고 완전한 형태를 의미한다. 플라톤은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 03 지난 3월 타계한 프랑스인 디자이너 위베르 드 OOO가 본인의 이름을 따 만든 명품 브랜드. 세계적인 배우 오드리 햅번이 사랑한 브랜드로도 유명한 OOO는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극한의 우아함'을 가진 의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 04 시중에 수없이 출시된 짜장라면 브랜드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어 고유명사처럼 불리는 농심의 라면 브랜드. 1개만 끓여먹자니 너무 적고, 2개 끓이자니 너무 많아 1.5인분짜리 출시가 시급하다. #SINCE1984 #오늘은내가OOOO요리사
- 05 한국 예능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프로그램. 2005년 처음 방영을 시작한 후 14년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포맷을 바꾸는 '무모한' 콘셉트로 시작했으나, 이후 상황극, 추격전, 가요제, 스포츠대회 참가 등 끊임 없이 도전하며 다른 프로그램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 최근 3월 31일로 잠정 종영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이 적지 않다.
- 06 인디 밴드 치즈의 보컬. 다른 멤버들이 개인 사정으로 밴드를 떠나 현재 혼자만 남아 있는 상황. 즉, 치즈가 곧 OO, OO이 곧 치즈다. 최근 MBC <북면가왕>에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밥의 여왕'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볼 사랑 빗꽃 말고'를 불렀다.
- 07 농업 진흥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 공식 마스코트 이름은 아리다. 보통 두 글자로 줄여 부른다. #O업O동조합
- 08 1851년 창간된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성향은 진보적인 편이지만, '지면에 맞는 모든 소식(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을 슬로건으로 삼고 발행해왔다.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All the news that's fit to dick'으로 슬로건을 바꿔 투지를 시작했고, 최근 디지털 버전 유료 구독자 수가 3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성공적인 유료화 모델로 정착하는 중이다. #스나즈나 #여기도날말팔았었는데 #개어려움
- 09 '매우 중요한 줄거리를 미리 발설해버리는 것'을 한글로 순화한 말. #스포일러말고 #네이버레는일본말이고
- 10 아가들의 필수품. <베테랑>을 보니 장시간 회의 때 이걸 착용하는 곳도 있더라.
- 11 시이나 카루호의 순정만화. 순정만화 중에서는 판매량 1, 2위를 다룬다. 이후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로도 제작되어 대중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다. 아이돌 그룹 우주소녀가 2017년 발표한 노래 제목이기도 하다.
- 12 '건제'를 뜻하는 일본 말. 당구 칠 때나 쓰이던 말이었는데, 최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국회에서 '왜 OOO를 하느냐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사퇴요청이 #OOO요청이다
- 13 중국의 고전소설로, 넓게 봤을 때 <날아라 슈퍼보드>의 원작.
- 14 고려시대 세도가 출신의 문신. 출세기도를 달리며 왕과 맞먹을 정도의 위세를 과시했다. 끝없는 권력욕 때문에 인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는데, 이것을 후세 사람들은 'OOO의 난'이라 부른다. #국사시간에배웠던 #효청의난 #홍경래의난 #OOO의난
- 15 굵어 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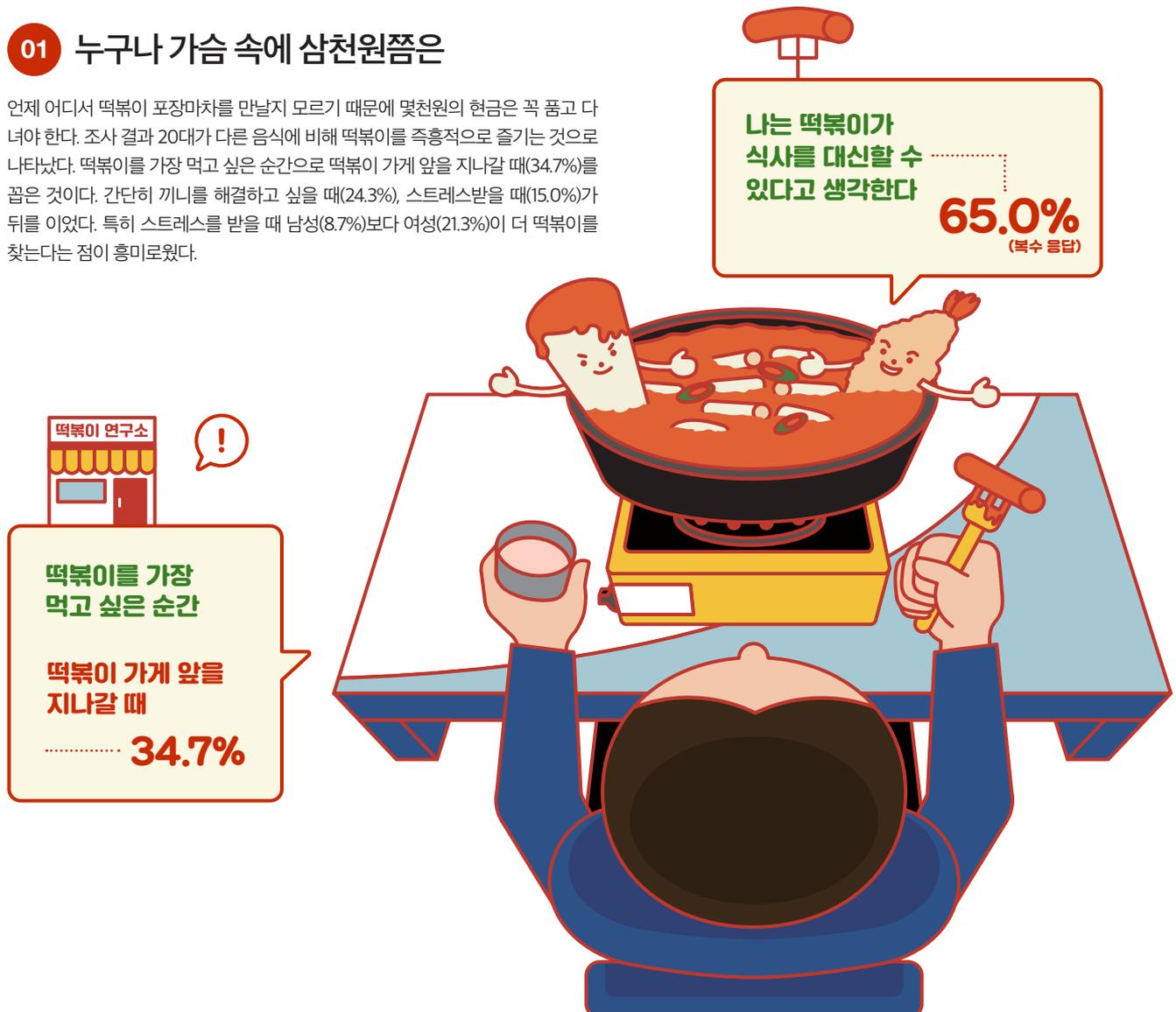
## 20대 최애 아이템 | 16 떡볶이

500원짜리 컵볶이를 들고 하교하던 초등학교 10대 때는 틈만 나면 친구들과 분식집 회동을 하고, 20대가 되니 한강에서 배달 떡볶이에 맥주를 마신다. 이쯤 되면 지금의 20대는 떡볶이가 키웠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전히 국민 간식인 떡볶이가 3월의 20대 최애 아이템이다.

EDITOR 남민희 minhee.nam@univ.me RESEARCHER 이재훈, 장지성 DESIGNER 김다희 INTERN 정수지

### 01 누구나 가슴 속에 삼천원쯤은

언제 어디서 떡볶이 포장마차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몇천원의 현금은 꼭 품고 다녀야 한다. 조사 결과 20대가 다른 음식에 비해 떡볶이를 즉흥적으로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떡볶이를 가장 먹고 싶은 순간으로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갈 때(34.7%)를 꼽은 것이다.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고 싶을 때(24.3%), 스트레스받을 때(15.0%)가 뒤를 이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성(8.7%)보다 여성(21.3%)이 더 떡볶이를 찾는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 ● 떡볶이에 대한 20대 인식 조사

● 조사 기간 2018년 3월 9일 ~ 3월 14일(6일간)

조사 대상 전국 20대 남녀 300명

조사 기관 20대연구소, tillion

표본 오차 ±5.66%p(95% 신뢰 수준) 더 자세한 조사 결과는 20slab.org 참고

●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국내 최초 유일의 20대 대학생과 직장인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www.fb.com/20slab

post.naver.com/20slab

goo.gl/71HCwZ

opm.wikitree.co.kr/20slab

●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자 패널 서비스 '틸리언'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App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설문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틸리언을 통해 설문 참여 시 실시간 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며, 적립된 포인트는 다양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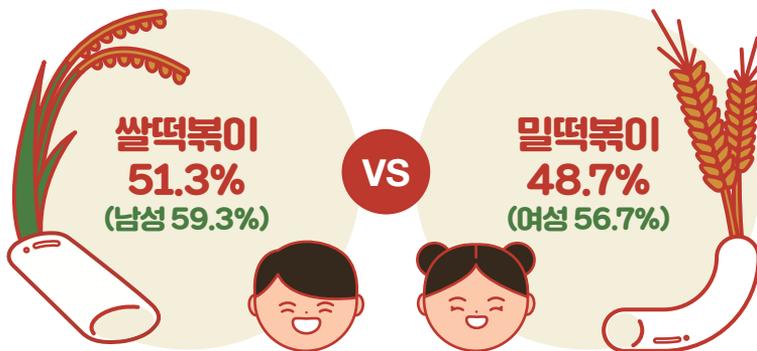
● 지금 바로 틸리언에 가입하고 20대 여러분의 독특 튀는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틸리언 홈페이지 : www.tillionpanel.com

틸리언 앱 :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틸리언' 검색 후 다운

## 02 남성은 쌀떡, 여성은 밀떡 선호

멤버가 딱 둘인데 팬덤 분열 심한 그룹이 있으니, 바로 떡볶이다. '쌀떡볶이파'와 '밀떡볶이파'의 팽팽한 세력 싸움 가운데, 20대는 쌀떡볶이(51.3%)를 조금 더 좋아한다고 답했다. 쌀과 밀이 주재료다 보니 20대는 떡볶이가 식사를 대신할 수 있다(65.0%, 이하 모두 복수 응답)고 말했다. 특히 여성의 70.0%가 식사 대용으로 떡볶이를 즐긴다고 답했다. 한편, 떡볶이가 본인의 소울푸드라는 20대는 34.0%였는데, 남성(28.0%)보다 여성(40.0%) 비율이 높았다. 떡볶이 싫어하는 여성은 없다는 속설이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보인다.



### 선호하는 떡볶이 사리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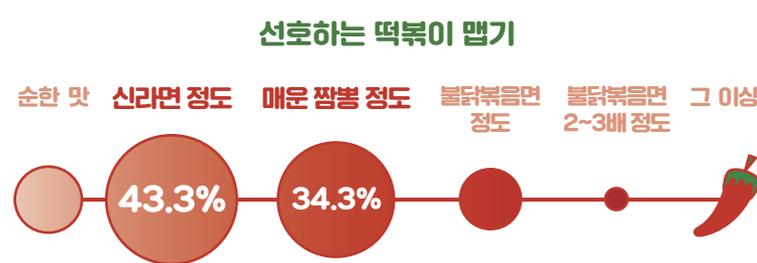
사리 종류	선호도
튀김	25.3%
라면사리	23.0%
삶은 달걀	15.7%

### 03 떡볶이 단짠은 튀김

떡볶이에 딱 하나의 사리만 추가할 수 있다면? 주저 없이 튀김을 선택할 것이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국물을 잔뜩 머금어 약간 눅눅하지만, 고소함은 그대로여서 더 매력적이기 때문. 조사 결과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사리는 튀김(25.3%)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라면 사리(23.0%)가 바짝 쫓았고, 3위는 삶은 달걀(15.7%)이었다. 점심으로 갖은 튀김이 들어간 라볶이에 계란을 으개 먹어야겠다.

## 04 20대가 좋아하는 떡볶이 맵기는?

떡볶이가 만인의 음식일지라도 선호하는 맵기가 다른 사람과는 경향이 힘들다. 매운 음식 덕후와 맵짤이(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는 서로가 좋아하는 떡볶이 맛을 이해 못 하기 때문이다. 희소식이 있다면, 조사 결과 20대 대부분이 살짝 매콤한 떡볶이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가장 선호하는 맵기는 '신라면 정도(43.3%)'였고, 좀 더 화끈한 '매운 짬뽕 정도(34.3%)'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 쵸스떡볶이 24.7%

## 05 20대 최애 떡볶이 브랜드 쵸스떡볶이

다양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20대 최애 브랜드는 쵸스떡볶이(24.7%)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지점이 많아 접근성이 좋아서(33.8%)'를 꼽았다. 매장도 많지만, 편의점에서 반조리 제품으로도 구매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신진떡볶이(23.3%)가 간소한 차이로 2위, 동대문 엽기떡볶이(18.7%)가 3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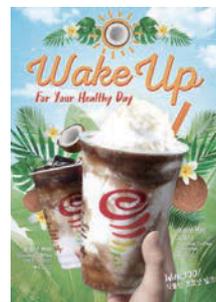
**클라우드나인**  
**'순면 100% 착한 생리대' 출시**

연극 <여도>와 기부 캠페인을 벌여 화제를 모았던 클라우드나인에서 순면 100% 착한 생리대가 새로 나왔다. 시중 제품들과 달리 날개를 포함해 피부에 닿는 모든 부분을 100% 순면 처리했다. 역류를 방지해주는 더블 에어 레이드를 사용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다. 쿠방, 티몬, 위메프 등 소셜 커머스를 통해 구매 가능.



**스피쿠스 아카데미**  
**'반값 할인' 이벤트**

영어 학원 가긴 귀찮고, 스텐디만 하긴 불안한 사람들 주목! 33만 회원들의 선택을 받은 전화 영어 '스피쿠스가' 학생들을 위해 '반값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레벨 테스트를 보면 30분 만에 결과가 나와 등록도 간편하다. 등록 후엔 전담 학습 매니저가 배정되어 실력을 꼼꼼히 분석해주고, 1:1 지속적인 관리도 해준다. 이번 학기엔 '영어 천재'에 등록해보자.



**잠바주스 신 메뉴**  
**'코코넛 커피 스무디'**

달콤한 코코넛이 콜드 브루 커피를 만났다. 잠바주스에서 '코코넛 커피 스무디', '코코넛 커피' 등을 신제품으로 내놓은 것. 100% 식물성 코코넛 밀크로 달콤한 맛을 챙겼다. 신 메뉴 출시를 기념해 해피앱에서 단골 매장을 등록하면, 4월 5일까지 코코넛 커피를 33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 발급된다.

# Weekly Hot & New

이주의 주목할 만한 소식들



**빌리프**  
**'아쿠아 밤 미스트' 출시**

빌리프의 시그니처 아이템 '폭탄 크림'의 촉촉함을 담은 미스트 2종이 출시됐다. 폭탄 크림의 수분감을 그대로 가져온 '아쿠아 밤' 미스트와 풍부한 보습감을 자랑하는 '모이스춰라이징 밤 미스트'다. 펄펄 한 번만으로도 안개처럼 고르게 분사돼 메이크업 이후에도 번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 손에 쏙 들어와 휴대도 간편하다.



**에이프룰 스킨**  
**'리얼 카렌듈라 필 오프 팩' 출시**

베스트셀러 아이템 '리얼 카렌듈라 필 오프 팩'이 리뉴얼 출시된다. 카렌듈라를 비롯해 캐모마일, 수레국화, 보리자, 라벤더 등 꽃 추출물이 함유돼 노폐물 관리에 탁월하다. 묵은 각질도 부드럽게 제거돼 간 달걀 피부로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유난히 번들거리는 T존에만 사용해도 효과 만점이다.



**프로스펙스**  
**'노앙' 컬래버레이션**

프로스펙스가 디자이너 남노아의 '노앙'과 컬래버레이션 스니커즈를 선보인다. 연예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로도 유명한 '노앙' 특유의 심플한 디자인을 스니커즈에 옮겨놓은 것이 특징. 프로스펙스 오리지널 스니커즈의 편안한 착화감도 돋보인다. 이번 아이템은 지난 23일 '서울패션위크' 런웨이에 오르기도 했다.



**안녕하신가영**  
**'상글 앨범' 발매**

봄날에 어울리는 신곡 하나. 심어송라이터 안녕하신가영이 싱글 앨범 <한강에서>를 발매했다. 한강을 산책하며 떠오른 생각들을 담아낸 곡으로 안녕하신가영 특유의 섬세함이 돋보인다. 실력과 뮤지션 작재가 감성적인 기타 사운드를 맡았다. 서교동 '헬로우 굿바이'에선 4월 4일까지 안녕하신가영 곡들을 소재로 한 전시회 <봄의 기약>도 열린다.



**빛은X카카오프렌즈 신제품**  
**'떡 케이크'**

라이언과 어피치가 떡 케이크로 태어났다. SPC삼립이 운영하는 떡 프랜차이즈 '빛은'에서 카카오프렌즈와 컬래버레이션한 신 메뉴 10종이 나온 것. 미니 설기, 꿀설기, 떡 케이크 등 종류도 다양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유기농 우유와 꿀을 넣어 고소하고 달달하다. 귀여워서 먹기 아까울 수 있다는 건 단점 아닌 단점.

01

## 2018 울릉도·독도 사진 공모전 (~3.31)



봄에는 바다로 섬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친구들! 모처럼 날 좋을 때 울릉도와 독도로 떠나보는 건 어때? 국립중앙과학관에서 2018 울릉도·독도 사진 공모전을 진행 중이야. 울릉도와 독도의 섬 경관, 다양한 생물, 삶과 문화 등을 담은 사진을 최대 다섯 작품까지 접수할 수 있어. 대상에게는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고 하니 꼭 도전해봐.

**주최** 국립중앙과학관  
**기간** 2018년 3월 31일(토) 마감  
**태그** #울릉대는 가슴안고 #뱃길따라.이백리

02

## 광화문의 추억 사진 공모전 (~4.10)



봄에는 시내에서 나들이 즐기고 싶은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과 광화문을 거닐어보는 건 어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개관 40주년을 맞아 광화문의 추억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광화문이나 세종문화회관을 촬영한 사진이면 풍경 사진도, 인물 사진도 OK! 선정 사진은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전시회에 전시된다고 하니 꼭 도전해봐.

**주최** 세종문화회관  
**기간** 2018년 4월 10일(화) 마감  
**태그** #오늘.바로처럼 #그자리에.서있는거야

그래 바로 너!

:

꽃길 따라 잠시

쉬어 가자

## 봄 소풍 가고 싶은 너를 위한 공모전 BEST 4

03

## 2018 한옥 사진 공모전 (~4.13)



따뜻한 봄날에는 못 가본 핫플레이스를 정복하고 싶은 친구들! 익선동과 북촌의 한옥마을도 가보고 한옥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하는 2018 한옥 사진 공모전에도 응모해봐. 한옥의 멋이 스며든 사진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어. 대상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주고, 수상작은 2018 서울한옥박람회에서 전시된다고 하니 꼭 도전해봐.

**주최** 한옥박람회 조직위원회  
**기간** 2018년 4월 13일(금) 마감  
**태그** #한옥마을 #맛해향해

04

##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 (6.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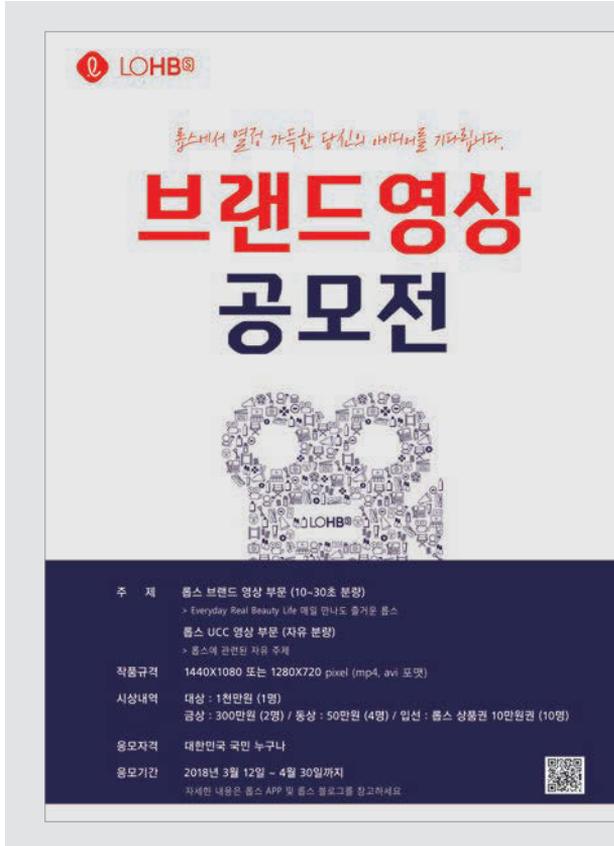


제주도의 푸른 봄밤을 느끼고 싶은 친구들! 망설이지 말고 질러. 제주 여행도 하고 제주시에서 개최하는 제1회 아름다운 제주시 전국사진 공모전에도 도전해보는 거야. 제주시 지역의 숨겨진 비경이나 자연 풍광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 돼. 대상에게는 제주시장상과 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고 하니 꼭 응모해봐.

**주최** 제주시  
**기간** 2018년 6월 1일(금) ~ 6월 20일(수)  
**태그** #떠나오.돌아서 #모든걸.훌훌버리고

# #대학생만을 #위한 #금주의 #꿀정보

EDITOR 김민기 minki12@univ.me



**LOHB®**

롭스에서 열정 가득한 당신의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 브랜드영상 공모전

주 제: 로스 브랜드 영상 부문 (10~30초 분량)  
 > Everyday Real Beauty Life 매일 립나도 즐거운 로스  
 로스 UCC 영상 부문 (자유 분량)  
 > 로스에 관련된 자유 주제

작품규격: 1440X1080 또는 1280X720 pixel (mp4, avi, mov)  
 시상내역: 대상: 1천만원 (1명)  
 금상: 300만원 (2명) / 동상: 50만원 (4명) / 입선: 로스 상품권 10만원권 (10명)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기간: 2018년 3월 12일 ~ 4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로스 APP 및 로스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 로스

로스 브랜드 영상 공모전  
[bitly.com/lobhs\\_video\\_contest](http://bitly.com/lobhs_video_contest)

롯데의 헬스&뷰티 스토어 로스(LOHB's)에서 브랜드 영상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자유 분량의 일반인 부문과 30초 이내 분량의 전문가 부문이 있고, 로스와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돼. 대상에게 1,000만원의 상금을 주고, 최종 당선작은 로스 홍보에 직접 사용될 예정이래. 4월 30일까지 응모 가능하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로스 블로그와 앱을 참고해서 도전해봐.

**응모 기간**  
 ~ 2018년 4월 30일(월) 마감

**응모 자격** 누구나

**시상 내역**  
 대상(1명) 1,000만원,  
 금상(2명) 300만원,  
 동상(4명) 50만원, 입선(10명) 로스 상품권 10만원권

###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



40주년 기념  
 서울시오페라단  
 G. PUCCINI OPERA  
 투란도트

## TURAN DOT

2018.4.26-29  
 목 - 금 19:30 / 토 - 일 17:0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페라 <투란도트>  
[www.sejongpac.or.kr](http://www.sejongpac.or.kr)

서울시오페라단이 한국 오페라 70주년과 푸치니 탄생 160주년을 기념해 오페라 <투란도트>를 선보인데. 왕자 칼라프가 냉혹한 공주 '투란도트'와 결혼하기 위해 세 가지 수수께끼를 푼다는 내용이야. 원작의 중국풍 배경에서 벗어나 미래도시 콘셉트로 연출했다는 점이 흥미로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공연 일정** 2018년 4월 26일(목) ~ 29일(일)  
**공연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국토교통부



제6기 국토교통부 정책 기자단 선발 안내

2018년도 제6기 국토교통부 + 정책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18년 4월 12일(수) ~ 4월 25일(수)

2. 모집인원: 10명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포함)

3. 모집분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민간 전문가, 대학생, 일반인

4. 모집대상: 국토교통부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정책 분석 능력, 글쓰기 능력, SNS 활용 능력 보유자

5. 모집분야: 국토교통부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정책 분석 능력, 글쓰기 능력, SNS 활용 능력 보유자

6. 모집분야: 국토교통부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정책 분석 능력, 글쓰기 능력, SNS 활용 능력 보유자

제6기 국토교통부 정책기자단  
[www.molit.go.kr](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에서 제6기 정책기자단을 모집한다. 정책기자단은 국토교통부의 정책 현장과 행사를 취재해서 온라인 기사를 쓰는 활동이야. 국토교통부 정책에 관심이 많고 블로그나 SNS를 활발히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해. 정책기자단이 되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기 교육도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모집 일정** ~ 2018년 4월 1일(일) 마감  
**지원 자격** 대학(원)생 및 일반인



(주)NEO

## 연극 <작업의 정식>

[ticket.interpark.com](http://ticket.interpark.com)

연극 <작업의 정식>이 대학로 연극 순위아트홀 1관에서 오픈런 중이다. 두 남녀의 밀당 승부를 보여주면서 연인의 심리를 기막히게 대변하는 연극이라고 해, 연애 고수들의 작업 비법이 궁금하다면 필수 관람! 짝사랑에 지친 솔로, 발목 잡고 싶은 초보 커플 그리고 애정이 시들해진 오래된 연인들까지, 어서 보러 가자. 연극 <작업의 정식>이 보고 싶다면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예매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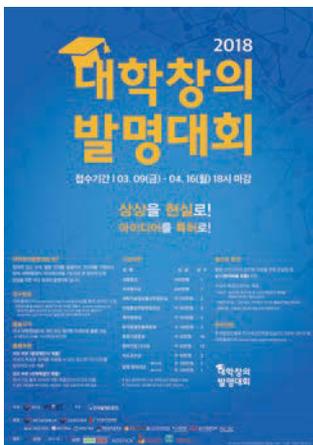
**공연 일정**

오픈런

**공연 장소**

서울 대학로 연극 순위아트홀 1관

특허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2018 대학창의 발명대회

[www.kipa.org/inventkorea](http://www.kipa.org/inventkorea)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2018 대학창의 발명대회를 개최한다. 응모 분야는 두 가지로, 주변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자유 부문과 참여 기업별 출제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출하는 공모 부문이 있어, 1등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 300만원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응모 기간** ~ 2018년 4월 16일(월) 18시 마감  
**응모 자격** 국내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 (3명 이내)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 연극 <옥상밭 고추는 왜>

[www.sejongpac.or.kr](http://www.sejongpac.or.kr)

서울시극단이 연극 <옥상밭 고추는 왜>를 선보인다. 오래된 연립주택의 옥상 텃밭을 배경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격렬한 갈등을 담아낸 작품이야. 2017년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에 선정됐지. 아웃캐ampus 카페에서 초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응모해봐.

**공연 일정** 2018년 4월 12일(목) ~ 22일(일)

**공연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이벤트 일정** 2018년 3월 30일(금) ~ 4월 5일(목), 네이버캐페 아웃캐ampus 나눔이벤트 게시판에서 응모

## HOT ISSUE

### HR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아웃캠퍼스 [cafe.naver.com/outcampus](http://cafe.naver.com/outcampus)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 마감	기타
GS리테일	영업(공통), 사업지원, 재경, 전략, 인사 등	recruit.gsretail.com	~ 4.2	2018년 GS리테일 상반기 대졸(전역(예정)장교) 신입사원 채용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관리, 안전관리, 공항서비스, 영업 등	recruit.kumhoasiana.com	~ 4.3	2018년 상반기 금호아시아나그룹 신입사원 그룹공채

###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 마감	상금
국립중앙과학관	2018 올림포-독도 사진 공모전	사진	~ 3.31	대상(1편) 300만원, 최우수상(3편) 100만원, 우수상(9편) 50만원, 장려상(15편) 20만원, 입선(20편) 5만원 등
기아자동차	제1회 기아자동차 세일즈 공모전 K-서포터즈	아이디어	~ 4.3	대상(1팀) 300만원, 최우수상(2팀) 100만원, 우수상(4팀) 50만원, 수상 팀 대상 기아자동차 현업 선배들의 멘토링 제공
EXCELSIOR	EXCELSIOR 비주얼&아트웍 공모전	디자인	~ 4.8	최우수상(2인) 200만원, 우수상(2인) 100만원, 입선(20인) EXCELSIOR 온라인 상품권 10만원, 참가자 전원 EXCELSIOR 온라인 50% 쿠폰 증정
한화케미칼	제1회 한화케미칼 대학생 광고 공모전	광고	~ 4.8	대상(1명) 500만원, 최우수상(2명) 300만원, 우수상(5명) 100만원
특허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학창의 발명대회	아이디어	~ 4.16	대통령상(1팀) 300만원, 국무총리상(1팀) 2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팀) 150만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2팀) 150만원 등
롭스	롭스 브랜드 영상 공모전	영상	~ 4.30	대상(1명) 1천만원, 금상(2명) 300만원, 동상(4명) 50만원, 입선(10명) 롱스 상품권 10만원권
SK브로드밴드	제1회 Be Creator	영상, 광고	~ 4.30	영화/광고 각 대상(1팀) 2천만원/1천만원, 최우수상(1팀) 1천만원/500만원, 우수상(1팀) 500만원/200만원 등

### 대외활동

주최	대외활동명	활동 기간	지원 마감	활동 혜택
몽벨	몽벨 위크론 원정대 1기	3개월	~ 3.30	몽벨 의류 제공, 온-오프라인 캠페인 참여 활동비 지급, 우수 참여자 시상금 추가 증정 등
국토교통부	제6기 국토교통부 정책기자단	9개월	~ 4.1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청년자문단 활동 기회 부여, 연말 최우수 기자 시상(국토교통부장관상), 정기 교육을 통한 개인 능력 향상의 기회 제공 등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즈 16기	7개월	~ 4.9	우수 서포터즈 포상(외교부 장관 표창 및 장학금), 우수 제안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책에 반영 검토, 과제 수행 완료한 이수자에 한해 외교부 장관 명의 수료증 발급
국방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제3기 대학생 서포터즈	8개월	~ 4.11	월별 오프라인 활동비 지급, 월별 우수 활동 팀 포상, 발굴별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수료증 지급, 유해 발굴 현장 탐방
아시아나항공	2018 아시아나항공 드림윙즈 8기	3개월	~ 4.13	국내 꿈 여행 (1박 2일) 지원금 제공, 해외 꿈 여행 (6박 7일) 항공권 및 체류비 지원, 대표이사 명의 수료증 발급 등
함께걷는아이들	함께기자단 2기	7개월	~ 4.18	우수 기자단 선발 및 시상, 수료증 및 활동 증명서 수여, 기자단 활동 관련 교육, 소정의 원고료 지급

### 강연 / 이벤트

주최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기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	오페라 <투란도트>	www.sejongpac.or.kr	4.26 ~ 4.2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중앙일보, 국제토셀위원회	TOSEL 영어시험	www.tosel.org	5.19(접수마감 4.24)	중앙일보 주관 영어능력 인증시험

# 대한민국 **1등** 창작뮤지컬!

제12회  
한국뮤지컬대상  
2관왕

제1회  
더뮤지컬어워즈  
4관왕

제11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뮤지컬상

100만 관객 돌파, 10개 도시 공연  
한, 중, 일 최초 라이선스 판매 뮤지컬  
공연 관람 만족도 9.7점!

데이트 No.1.  
♥ 뮤지컬 ♥

# 김종욱 찾기

INDIA ↔ SEOUL  
DAEHANGNO



WELCOME  
2016. 6.17 OPEN  
대학로 뷔파첼 시어터

# 모으고 쓰는 게 다가아냐! 앱테크 고수 4인의 리브메이트 200% 활용 꿀팁 대방출

몇 개월째 쓰면서도 이걸 몰랐다니! 앱테크로 돈 좀 모아왔다 하는 이들이 앱테크계의 대표 앱, 리브메이트 활용법을 공개했다.

EDITOR 신정



**이성호**  
인천대 신문방송학과(26)

## 재미 없는 건 억을 준대도 못함

리브메이트를 포인트 모으는 앱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통학 길에 시간 때우기 용으로 활용하는 편이야. 리브메이트를 잘 찾아보면 재미있는 기능이 은근히 많거든. 일단 앱에 입장해서 넌센스 그림퀴즈인 '오늘의 퀴즈'와 주 단위로 진행되는 '시사/경제 퀴즈'를 풀고 포인트를 쌓지. 그렇게 모은 포인트리로는 웹툰을 보거나 U+ 비디오 포털에서 영화, 혹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사용해. 물론 캣 크러시 게임을 켜놓고 중간중간 지나가는 스타샵을 클릭해서 퍼즐게임을 완성, 포인트를 쌓는 것도 놓칠 수 없지. 가끔 로또리치에서 받은 번호로 로또를 사보기도 해. 당첨된 적은 물론 또르르.....



#웹툰보기 #영화보기 #퀴즈풀기  
#로또리치 #증강현실게임 #다되는앱  
#또본적있나?



**유승빈**  
경희대 경영학과(25)

## 리브메이트는 내 쇼핑메이트!

리브메이트 포인트리를 제휴사 포인트로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었어? 나는 주로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포인트리를 활용하는 편이야. 리브메이트를 통해 모은 포인트리는 네이버 엔페이(NPay), SSG 머니, 페이코 포인트, h point 등으로 교환할 수 있거든. 여행을 좋아하는 내 친구는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교환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더라고. 또 앱 내에 있는 포인트리 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직접 쇼핑할 수도 있어. 얼마 전엔 열심히 모은 포인트리를 화장품 세트에 바꿨지. 아참, 아모레퍼시픽몰, 엘롯데, 신라면세점, 레진코믹스, 11번가에서 쓸 수 있는 쿠폰들도 상시 다운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도록 해!



#소비예정 #쇼핑메이트  
#제휴사 포인트 교환  
#항공사 마일리지 쌓는법  
#쿠폰없이 못살아



## Welcome Liiv Mate

리브메이트 가입하고  
맥북프로 받아!



▣ 행사기간 2018.3.1(목) ~ 3.31(토)

▣ 행사대상 Liiv Mate 최초 가입회원

▣ 참여방법

- 1) Liiv Mate 앱 다운로드
- 2) 회원가입 시 추천인정보 입력단계에서 프로모션코드에 '리브메이트' 입력

▣ 당첨안내

- 2018.4.27(금) 이내 당첨자 개별 안내 예정

▣ 행사내용

- Liiv Mate 신규 회원가입 시 포인트리 1,000P 즉시 지급
- 신규가입 회원 중 3명을 추첨해 애플 MacBook Pro(13형 512GB) 제공
- 단, Liiv Mate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추가 추첨 기회 부여



**박장순**  
충북대 국제경영학과(25)

### n빵 신청으로 떼인 돈 받는 법

나는 친구들과 더치페이 하거나 모임 회비를 정산할 때 주로 포인트리를 활용하는 편이야. 친구들과 밥 먹거나 술 마실 때 매번 정확히 1/n 하기가 힘들잖아. 일단 내가 먼저 계산했는데 나중에 얼마씩 보내라고 말하기 민망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리브메이트 앱으로 친구들에게 'n빵 신청'을 하면 굳이 말로 할 필요 없이 정확한 금액을 딱 요청할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해. (물론 그 전에 친구들을 모두 리브메이트에 가입시켜놔야겠지?) 또 매달 회비를 모아야 하는 모임의 총무들에게는 모임통장 기능도 강추해. 매달 특정일을 지정해놓으면 자동 포인트리 보내기가 가능하고, 돈을 안 낸 회원이 있다면 조르기 기능을 통해 포인트를 달라고 조를 수도 있거든.



#신개념\_더치페이 #모임통장  
#n빵신청 #떼인돈 #많은사람  
#각종모임\_총무\_필수앱



**곽한별**  
경북대 경영학부(25)

### 내 통장 텅장 만드는 주범 찾기

리브메이트에는 포인트리를 모으고 쓰는 것과 관련된 기능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제일 유용하게 쓰는 기능은 바로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향후 지출 방향까지 알려주는 '소비매니저'지. 소비매니저는 내가 어느 부분에서 많은 지출을 했는지 통계를 내 주고, 또래들의 소비 패턴과 내 소비 패턴을 비교해서 알려주기도 해. 캘린더 날짜 아래에는 당일 지출한 금액이 기록돼서 매일 얼마를 썼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지난달 지출 분석을 통해 이번 달에는 얼마 정도를 지출할지 예상해주는 기능도 있지. 한마디로 재정 컨설팅을 해주는 가계부를 둔 기분 아닐까? 소비매니저 기능을 사용하고부터는 총동구매하는 습관이 많이 줄어서 소소하게 저축도 시작하게 됐어.



#최대지출\_식비\_실화나  
#통장오정으로\_거듭나는길 #똑똑한\_가계부  
#개인컨설턴트 #소비매니저



서비스 항목	서비스 이용	추가 추천기회
포인트리 사용	Liv Mate에서 포인트리 보내기/충전/ATM출금/교환	1회
바코드 결제	바코드결제, OK캐쉬백결제	1회
캣크러시	캣크러시에서 포인트리 적립	1회
쿠폰구매	Mate쿠폰, 제휴쿠폰	1회
퀴즈참여	오늘의 퀴즈, 시사경제퀴즈	1회
소비매니저	소비내역 등록, 예산등록	1회

#### 유의사항

- 동일 서비스항목 내 서비스 이용 건은 1회만 인정
- 예) 보내기 1회+ATM출금 1회 → 추가 추천기회 1회 부여
- 해당상품 단종 또는 품질 시 등급 이상의 상품으로 대체 가능
- 제세공과금은 당사 부담

※ 본 행사는 Liv Mate의 영업정책 및 제휴업체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Liv Mate 고객센터(1644-9311)



**대학내일 표지모델 신청 방법!**

covermodel@univ.me로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필요한 사진은?**

프로필 사진 제외,

자신만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사진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① 대학내일 표지와 내지를

장식하는 촬영 진행

② 짧은 인터뷰

③ Daily Life 소개

대학생이라면,  
대학내일의  
커버모델에  
도전하세요!

20  
대학내일



Find Cover Model

밥보다 더 맛있는 밥  
**햇반® 컵반**

햇반컵반 하나면 어디나 맛집

가정식전문  
**1인  
 맛집**

**비빔밥이 맛있는 집**

감칠맛 ★★★★★



햇반컵반은 '컵에 담은  
 가정식 '반(飯)'상을 의미합니다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랑

# LG Global Challenger 2018

- 1. 선발인원 일반부문 30팀 / 외국인 유학생 부문 5팀
- 2. 지원자격 일반부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국내 4년제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 외국인 유학생 부문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중인 유학생
- 3. 팀 구성 전공제한 없이 동일학교 재학생 4명으로 구성
- 4. 지원기간 2018.04.09(월) ~ 04.18(수) [www.lgchallengers.com](http://www.lgchallengers.com)



탐방비 전액 지원



우수탐방보고서 장학금 지급



수상자 입사 및 인턴 자격 부여